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의 교리



이마누엘 스웨덴볼 / 배제형 옮김

도서 출판 벽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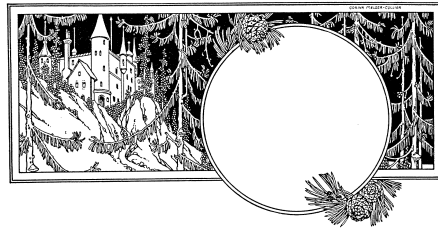
“Dark sayings of old”

Psalms 78:2,3,4

Speak what is high! high!
Let what is ancient come out of your m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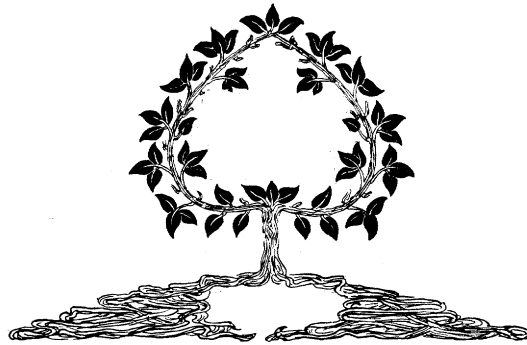
1 Samuel 2:3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의 교리



이마누엘 스웨덴북 지음
배제형 편역
도서출판 벽옥

THE NEW JERUSALEM
AND
ITS HEAVENLY DOCTRINE



EMANUEL SWEDENBORG

역자 서문

어느 누군가가 ‘당신이 말하는 새교회는 무엇입니까?’...더 정확히 질문받아서 ‘스위든봄지언(Swedenborgian)이 갖고 있는 교리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 받는 스위든봄지언을 위한 준비물로서 이 책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여 번역을 시도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선견자의 책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무게 있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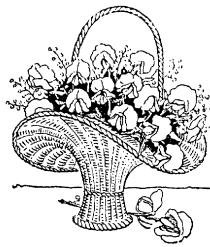
45년 전쯤 대학 시절에 이 책을 만나는 기회도 가져었지만 아마 그 시절의 만남은 어쩌면 책을 관광하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지금도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버벅거리는 수준이라 말해야 정확한 내 수준의 찻수이라 생각된다.

어쨌든 이 책의 장점이라면 30여권이 훌쩍 넘는 방대한 선견자의 저술 중 정수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주 짧은 문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결하면서도 집약적인 이 교리를 반복해서 읽고 숙고해서 가슴에 꼭 새겨놓길 바랄뿐이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 더 충분한 이해는 주님의 자비하신 허락의 범주인 바, 해맑은 심정으로 주님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세로 옷깃 여미고 좌정한다면 여러분을 늘 수호하는 두 천사의 도움으로부터 가능하리라 확신한다.

2013년 추수감사절에, 뉴욕 베이사이드에서...





이마누엘 스웨덴보 (Emanuel Swedenborg, 1688-1772)....

그는 비상한 재능들을 부여받았었는데, 이 재능은 아주 독특하고 다양하기도 해서, 저명한 학자들은 다방면에서 천재이라고 평가되는 아주 희귀한 몇 사람들 사이에 그를 끼여 넣어 분류했다. 백과사전들은 많은 주요한 과학적 발견과 발명을 그의 비옥한 지성의 잘 익은 열매들로 진열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물질에 관한 근대 역학 개념을 예상했다. 혹성의 형성에 관한 성운설을 암시했다. 야금술 분야에서 처음 포괄적 작업을 일궈낸 광산 엔지니어였다. 대수학에 관한 스웨덴의 교과서를 처음 준비한 수학자였다. 그리고 두뇌의 몇 구역의 기능과 관이 없는 선(glands)들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과학의 가장 바깥 영역들에 까지 이르는 한편, 그는

혼(soul)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탐구에도 몰두했다. 이 탐구는 그가 영(spirit)의 아주 방대한 영역으로 돌아서고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영적 실재를 알아 채게 될 때 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었다. 그는 이 영적 실재를 “영적 시각” (영적으로 봄) 이라 불렀다. 그는 인간 혼의 발달과 성장에 관한 가장 완전한 서술이 성서에 있음을 발견했다.

그가 우리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자기가 기록한 것들은 그 곳에 실제로 있는 것의 파편 조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파편 조각의 실재를 움켜쥔 애독자, 자신의 생명과 그것의 성장이 이 저술 안에서 반사(mirrored) 되고 있음을 찾아내는 독자들은 성서를 위한 가장 드높은 이름인 “하느님의 말씀”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인간의 진행에 대한 자비로운 이해를 발견할 것이다.



차례

서문-새 천국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의해 의미된
것...15

- 1 선과 진리...19
- 2 의지와 이해성...23
- 3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27
- 4 총괄적 측면에서의 사랑...35
- 5 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39
- 6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49
- 7 신앙...61
- 8 경건함...69
- 9 양심...75
- 10 자유...79
- 11 공적...83
- 12 회개와 죄의 용서...87
- 13 거듭남...93
- 14 시험...99
- 15 세례...103

- 16 성찬...105
- 17 부활...107
- 18 천국과 지옥...111
- 19 교회...115
- 20 신성한 성경, 또는 말씀...117
- 21 섭리...121
- 22 주님...127
- 23 교회 정부와 시민 정부...137





서문

새 천국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의해 의미된 것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What is meant by The New Jerusalem)

계시록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21:1,2,12-24) “나는 새 천국과 새 땅을 보았다. 그 이유는 처음의 천국과 처음의 땅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자기 남편을 위해 준비된 신부 같았다. 이 성은 크고 높은 벽을 가지고 있고, 열 두 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 위에 열 두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이름들이 쓰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열 두 지파의 것들이다. 그리고 도성의 벽은 열 두 기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들이 있다. 도성 자체는 정사각으로 놓여 있다, 그리고 길이는 넓이와 같다: 그리고 그가 갈대로 도성을 잴더니 일만 이천 펠롱(스타디온)이었다. 그리고 도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같았다. 그리고

새 천국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가 도성의 벽을 잰데, 일백 사십 사 큐빗이었고, (이는) 천사에 속하는 사람의 측량이다. 그리고 도성의 벽의 구조물은 벽옥이었다. 그리고 도성 자체는 순수한 유리 같은 순금이였다. 그리고 도성의 벽의 기초들은 모두 각각 귀중한 돌로 장식되어 있었다. 열 두 문들은 열 두 진주들이었다.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였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것을 밝게 했다. 그리고 그 곳의 등은 어린 양이었다. 그리고 구원되어진 나라들이 도성의 빛 안에서 걸을 것이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도성 안으로 영광과 영예를 가져 올 것이다.”

위 구절을 읽는 사람이 글자 의미에 따라서만 이해할 경우 이럴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이 멀해지고 새 하늘이 올라온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땅에 내려 올 것이고, 상술한 바대로 측량될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위 구절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한다. 천사들이 위 말을 이해할 때, 그 이해는 그 말의 의미이다. 이 의미는 말씀의 내적 부분, 즉 말씀의 영적 의미이다. 내적 또는 영적 의미에서 새 천국과 새 땅은 천사들이 이해할 경우, 천국들 안에 있는 새로운 교회와 지상에 있는 새로운 교회이다. 양쪽 세계에 있는 새로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살필 논제의 중심이다.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의 안에서 밖으로 내려오는 도성 예루살렘은 새로운 교회의 천국적 교리를 뜻한다. 각 치수가 동등

새 천국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한 길이, 넓이, 높이란 총체적 측면에서 이 교리 속의 모든 선들과 진리들을 뜻한다. 성벽이란 새 교회를 보호하는 진리들을, 성벽의 치수, 이는 144큐빗이고, 이는 천사에 속하는 사람의 측량이다란 총체적 측면에서 모든 보호하는 진리들과 이 진리들의 품질을 의미한다. 진주로 된 열 두 문은 천국 입장을 위한 진리들을 뜻하고, 문에 있는 천사 역시 같은 의미이다. 귀중한 돌로 된 성벽의 기초들은 새로운 교회의 교리에 기초가 된 지식들을 뜻한다.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들이란 일반적, 세부적 측면에서 새로운 교회 속의 모든 것들을 뜻한다. 열 두 사도들 역시 같은 의미이다. 도성과 거리를 만든 순수한 유리 같은 금이란 사랑의 선, 이 선의 진리와 더불어 교리는 반투명하다(translucent)를 뜻한다. 구원되어지는 나라들, 그리고 도성 안으로 영광과 영예를 가져 올 땅의 왕들이란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는 새로운 교회에 속하는 모든 이들을 뜻한다. 하느님과 어린 양이란 참 신성과 신성한 인간에 관련된 측면에서의 주님을 뜻한다. 이상 간략하지만 살핀 내용이 말씀의 영적 의미이고 이 의미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글자 의미, 또는 자연적 의미이다; 더 나아가 이 두 의미, 즉 자연적, 영적 의미는 상응을 통하여 하나를 만든다. 이렇게 대단히 간략하나마 살펴 본 이유는 성경의 글자 의미 너머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 정도만을 확인해보려 해서였을 뿐이고, 구절과 구절이 담는 세세한 의미는 이 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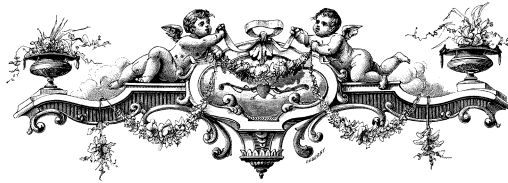
새 천국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목적하는 바가 아니다.



1 선과 진리

(Good and Truth)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성한 질서에 따라 있는 바, 선과 진리에 관련 맺고 있다. 이 둘에 관련되지 않는 것은 천국이든 이 세상이든 아무 것도 없다. 이유인 즉, 선과 진리 둘 다는 신성으로부터 진행되고, 이로부터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명백해지는 바,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장 긴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선이 진리에 어떻게 관련을 가지는지...어떻게 선이 진리와 결합하는지 등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은 교인에게는 더 더욱 절실한 지식이기도 하다. 그 이유가 천국의 모든 것들이 선과 진리에 관련되는 것과 꼭 같게 교회의 모든 것과도 관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내용이 책의 여러 항목 중 첫 순서에서 취급되고 있다.

선과 진리

신성한 질서에 의거 선과 진리는 결합되고 분리되지 않는다. 고로 그것들은 하나이고 둘이 아니다. 그 이유가 결합된 그것들은 신성으로부터 진행되기 때문, 그리고 그것들은 천국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선과 진리들은 교회 안에서도 결합되어 있어야만 한다. 천국 안에서의 선과 진리의 결합을 천국의 결혼이라 부른다. 그 이유가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 결혼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로 말씀에서 있는 천국도 결혼에 비교되어져서 주님은 신랑과 남편이라 불리우고, 한편 천국과 교회는 신부와 아내라 부르고 있다. 천국과 교회가 위와 같이 불리는 이유는 천국과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진리 안에서 신성한 선을 받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소유한 모든 총명과 지혜는 이 결혼으로부터 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으로부터 떼어져 진리만으로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진리로부터 떼어져 선으로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런 경우는 교회 속의 사람들에게도 똑같다.

선과 진리가 결혼 같은 바, 명백해지는 것은, 선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는 선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저것과 결합하기를 서로 갈망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랑, 이런 열망을 가지지 않은 교회 속의 사람은 천국의 결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로 교회가 그 사람 안에 아직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

선과 진리

가 선과 진리의 결합이 교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선은 여러 겹이다. 일반적으로, 영적 선과 자연적 선이 있고, 둘 모두는 순수한 도덕적 선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 선이 이러하듯 진리도 원리는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가 모든 진리는 선에 속해 있고, 선의 형체들이기 때문이다.

선과 진리의 경우가 위와 같은데 비해 정반대되는 경우는 악과 거짓의 관계이다. 즉 신성한 질서에 따라 있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선과 진리에 관계를 가지듯, 신성한 질서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악과 거짓에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선이 진리와, 진리가 선과 결합하기를 사랑하듯, 악은 거짓과, 거짓은 악과 결합하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모든 총명과 지혜가 선과 진리의 결합으로부터 튀어나오듯, 모든 어리석음과 아둔함은 악과 거짓의 결합으로부터 발생된다. 악과 거짓의 결합을 지옥의 결혼이라 부른다.

악과 거짓이 선과 진리에 반대되어 있다는 여건으로부터, 명백해지는 바, 진리는 악과 결합될 수 없고, 선이 악으로부터의 거짓과 결합할 수 없음이다. 그 이유가 진리가 악에 결합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다. 그 이유는 진리가 이미 거짓화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이 악의 거짓과 결합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이 아니고 악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섞음질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악으로부터

선과 진리

의 거짓이 아니다면 선과 더불어 결합될 수 있다.

생활 안에서 확증함으로부터 악 안에,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의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은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악을 선이라고, 자신의 거짓을 진리이라고 굳건히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 안에서 확증함으로부터 선 안에, 그리고 선으로부터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각자는 악과 거짓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선은 그것의 진리와 더불어 본질적 차원에서 천국적이기 때문이다. 설사 아직 본질 차원에서 천국적이지 않다해도 이는 천국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모든 악, 그것의 거짓과 더불어 본질 차원은 지옥적이다. 그리고 아직은 본질 차원에서 지옥적이다 말하기 꺼끄럽다해도 그것은 여전히 그 근원을 지옥에 두고 있다. 그리고 천국으로부터의 모든 것은 빛 안에 있으나, 지옥으로부터의 모든 것은 어둠 안에 있다.



2

의지와 이해성

(The Will and Understanding)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구성하는 두 능력(faculty)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의지라 불리우고, 또 하나는 이해성이라 불린다. 이 두 능력들은 서로로부터 확실히 구분되나, 하나의 형태로 있도록 창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일 때, 그 둘은 마음(mind)이라 불리워진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인간의 전체 생명은 그것들 안에 있다.

신성한 질서에 따른 우주의 모든 것이 선과 진리에 관계를 맺듯, 인간과 더불어 모든 것은 의지와 이해성에 관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과 더불어 선은 그의 의지에 속하고, 그 인간과 더불어 진리는 그의 이해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두 능력들, 곧 인간의 이 두 생명들은 선과 진리를 위한 그릇(receptacle)과 신하(subject)이다. 의지는 선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의 그릇과 신하되고, 이해성은 진리에

의지와 이해성

관계하는 모든 것들의 그릇과 신하가 되고 있다. 인간과 더불어 선들과 진리들은 이 밖에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 선들과 진리들이 이 외 어느 곳에도 있지 않듯 사랑과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가 사랑은 선에 속하고, 선은 사랑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앙은 진리에, 진리는 신앙에 속한다.

우주의 모든 것이 선과 진리에 관련되고, 교회의 모든 것 역시 사랑의 선과 신앙 속의 진리와 관련을 가지기에, 그리고 인간은 이 두 능력으로부터 사람이기에, 이 두 능력이 이 책에서 취급되는 것이다. 이 외 인간이 그것들에 관한 뚜렷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고함의 기반을 가지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또한 의지와 이해성은 인간의 영(spirit)을 구성한다. 그 이유가 인간의 지혜와 총명, 총체적인 그의 생명이 이 둘 안에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은 그저 순종만 할 따름이다.

어떻게 의지와 이해성이 한 마음을 만드느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마치 선과 진리가 하나를 만들듯 한 마음을 만든다. 그 이유가 의지와 이해성 사이에도 선과 진리 사이에 있는 결혼과 똑같은 결혼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결혼의 품질이 무엇인지는 선과 진리에 관련해 앞서 예증했었던 것으로부터도 충분히 나타날런지 모른다;

의지와 이해성

즉 선은 어떤 사물의 참 실재(esse)이고 진리는 참 실재로부터의 실체(existere) 이듯, 인간과 더불어 의지는 그의 생명의 참 실재이고, 그의 이해는 이 실재로부터의 참 실체이다. 그 이유가 의지에 속하는 선은 이해성 안에서 모양을 갖추고 그 자체를 볼 수 있게 진열하기 때문이다.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은 의지와 이해함을 가지고 있으나,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은 의지와 이해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의지 대신 욕망을, 이해함 대신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진실로 인간의 의지는 선의 저장소이고, 이해성은 진리의 저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지는 악을 내포할 수 없고, 이해성은 거짓을 내포할 수 없다. 각 둘은 반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반대되는 것은 상대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는 왜 악 안에 있고, 악으로부터의 거짓 안에 있는 이들을 두고는 그들이 합리적이다, 슬기롭다, 총명하다 등의 말을 하지 않는가의 이유이기도 하다. 악한 자와 더불어서는 의지와 이해성이 주재하는 마음에 속하는 내면들은 단혀있다. 악한 자 역시 자기들 스스로는 나는 뜻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의지와 이해를 가졌다고 상상하고 있다. 그들의 의지는 오로지 지독히 탐냄이고, 그들의 이해는 오로지 지식이다.

의지와 이해성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 Man)



인간은 영계와 자연계에 동시에 있을 수 있도록 창조되어져 있다. 영계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자연계는 인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양쪽에 있을 수 있게 창조되었기에 인간에게는 내적 부분과 외적 부분이 주어졌다. 내적 부분, 이를 통하여 그는 영계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외적 부분, 이를 통해 그는 자연계 안에 있을 수 있다. 그의 내적 부분은 내적 인간, 그의 외적 부분은 외적 인간이라 불리운다.

모든 인간 각각은 내적, 외적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경우는 다르다. 선한 자와 더불어 내적 부분은 천국 안에, 천국의 빛 안에 있고, 외적 부분은 세상에, 세상의 빛에 있다. 그리고 선한 자의 외적 부분의 빛은 천국의 빛에 의해 계발되어진다. 그러므로 선한 자의 내적, 외적 부분은 마치 원인과 결과 같이, 또는 앞서 오는 것에 그 뒤를 당연히 따르듯 하나로 행동한다. 그러나 악한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자와 더불어 내적 부분은 세상 안에 그리고 세상의 빛 안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빛이 외적 부분에 있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천국의 빛으로부터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세상의 빛으로만 가능하다. 이 빛은 그들에 의해 자연의 발광체라 불리운다. 이것은 왜 천국에 속한 것이 그들을 위해서는 짙은 어둠이고 세상에 속하는 것만이 빛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인가 이다. 이로부터 명백한 바, 선한 자는 내적, 외적 인간을 가지나, 악한 자는 내적 인간은 없고 단지 외적 인간만 있다.

내적 인간은 영적 인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인간은 영적인 빛인 천국의 빛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적 인간은 자연적 인간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인간은 자연적인 빛인 세상의 빛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적 부분이 천국의 빛 안에 있고, 외적 부분은 세상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양쪽 세계 모두에서 영적 인간이나, 내적 부분이 천국의 빛 안에 있지 않고, 외적 부분은 세상의 빛에서만 있는 경우 그는 양쪽 세계에서 자연적이다. 말씀에서, 영적 인간은 살아 있는 인간, 자연적 인간은 죽어 있는 인간이라 불리우고 있다.

자기의 내적 부분이 천국의 빛 안에 있고, 그의 외적 부분이 세상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 자연적 양쪽으로 생각하는 바, 그의 영적인 생각은 그의 자연적 생각 안으로 흘러서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거기서 지각된다. 그러나 자기의 내적 부분과 함께 외적 부분이 세상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만 생각함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가 물질 뿐인 세상의 것들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생각함이란 사물의 그 본래 취지대로 생각함, 즉 진리를 진리의 빛으로부터 보는 것, 선을 사랑함으로부터 선을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사물의 품질을 보고 그것들의 애착을 지각하고, 물질로부터서는 추상적으로 생각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생각함이란 어떤 사물을 물질과 더불어, 물질 안에서 생각하고 보고 지각함을 뜻한다. 고로 이 방법은 매우 조잡하고 희미한 수준이다.

내적, 영적 인간은 그 자체로만 간주해보면, 천국의 천사이다. 더욱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서 조차 비록 그가 알아채리지는 못하겠지만 천사들과 연계되고 있다. 언제인가 그가 몸에서 분리될 때, 이 인간은 천사 사이에 와서 있는다. 그러나 내적, 자연적 인간은 그 자체로만 간주하면 영이고 천사는 아니다. 이 인간 역시 몸 안에서 사는 동안 영들과 연계되어 있으나 그 연결은 지옥의 영들과 더불어서 이다. 그가 몸에서 분리되는 때 지옥의 영 사이에 있게 된다.

영적 인간들과 더불어 있는 내면의 것들은 실제로 천국을 향하여 끌어 올리어진다. 그 이유는 이 내면의 것들의 주요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관심사가 천국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자연적 일 뿐인 인간과 더불어 마음에 속한 내면의 것들은 세상 쪽을 향해 실제로 돌아 선다. 그 이유는 그것의 주된 관심은 세상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속한 내면의 것들은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 쪽으로 돌아 선다. 더불어 보다 수준 낮은 마음에 속하는 외면의 것들 역시 같은 방향으로 돌아 선다.

내적, 외적 인간에 대하여 단지 총괄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이들은 생각하고 뜻하는 것은 내적 인간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외적 인간이다 라고 상상한다. 그 이유는 생각하고 뜻함은 볼 수 없고, 말함과 행동은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렇다. 즉 인간이 총명하게 생각하고, 슬기 있게 뜻할 경우, 그러면 그는 영적 내적 부분으로부터 생각하고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총명하게 생각하지 않고 슬기롭게 뜻하지 않을 경우, 그는 자연적 내적 부분으로부터 생각하고 뜻할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님과 주님에 속하는 것들을 올바르게 생각할 때, 그리고 이웃과 이웃에 속한 것들을 올바르게 생각할 때, 그리하여 주님과 이웃을 향하여 올바르게 처신할 때, 그는 영적인 내적 부분으로부터 생각하고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진리로부터의 신앙으로부터, 그리고 선을 사랑함으로부터, 고로 천국으로부터 생각하고 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주님과 이웃에 관해 잘못되게 생각하고 뜻할 경우, 그는 자연적 내적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부분으로부터 생각하고 뜻한다. 그 이유는 거짓인 것으로부터의 신앙으로부터, 그리고 악인 것을 사랑함으로부터, 고로 지옥으로부터 생각하고 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간이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 안에 있는 만큼, 그는 영적 내적 부분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로부터 생각하고 뜻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인간이 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 안에 있는 만큼, 그는 자연적 내적 부분 안에 있고,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고 뜻하고, 그것으로부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주님에 의해 질서 잡혀 설비되었는 바, 인간이 천국으로부터 생각하고 뜻하는 한, 그의 내적, 영적 인간은 열려있도록 형성되어 있다. 그 열림은 천국 쪽으로, 주님 쪽으로 있다. 그리고 그 형성은 천국 속에 있는 것에 따라서 있다. 한편 인간이 천국으로부터 생각하지도, 뜻하지도 않고 세상적으로만 일 경우, 그의 내적, 영적 인간은 닫혀져 있고, 그의 외적 인간은 열려져 있다. 그래서 그 열림은 세상 쪽에 있고, 그 형성됨은 세상 속에 있는 것에 의거해 있다.

내적, 영적 인간이 천국 안으로 주님을 향해 열려져 있는 이들은 천국의 빛 안에 있고, 주님으로부터 계발되는 중이고, 고로 그는 총명과 지혜 안에 있다. 이들은 진리가 진리이기에 진리를 본다. 그들은 그것이 선이기에 선을 지각한다. 그러나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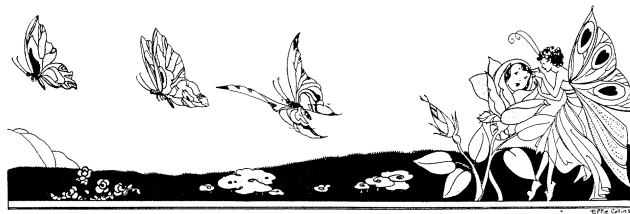
내적, 영적 인간이 닫혀 왔던 이들은 내적 인간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내적 인간이 무엇인지는 더 더욱 모른다. 이들은 신성이 존재함을, 사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천국과 교회에 속하는 여러 사항들 역시 믿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의 빛 안에서만 있고, 그것으로부터서만 계발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이 신성이라고, 거짓을 진리라고, 악을 선이라고 간주해버린다.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고, 그의 손이 만질 수 있는 만큼만을 그의 내적 부분이 자기의 외적 부분이라고 할 경우, 이를 감각적 인간이라 부른다. 이 인간은 가장 수준 낮은 자연적 인간이고, 교회의 신앙에 속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한 오류 속에 있다.

지금까지 살핀 인간의 내적 부분과 외적 부분은 인간의 영의 내적 부분이고 외적 부분이다; 그의 몸은 단지 덧붙여진 외적 부분일 따름이나 이 몸 안에 두 부분이 실존하고 있다; 그 이유가 몸 자체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몸 안에 주재하는 몸의 영으로부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목해둘 것은, 인간의 영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후에도 여전히 생각하고 뜻을 계속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점이다. 생각함과 뜻함은 그의 내적 부분이고, 말함과 행동함은 그의 외적 부분이다. 이에 관해 더 살피겠다면 "천국과 지옥"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이라는 책을 읽어 살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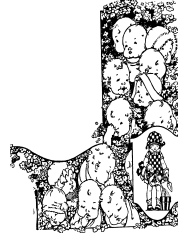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4

총괄적 측면에서의 사랑

(Love in general)



인간의 참 생명은 그의 사랑이다. 사랑이 존재하는 것과 꼭 같게 그의 생명도 존재한다. 정확히 그의 전부다라고 말해도 무난하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신을 지배하는 사랑, 또는 통치하는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은 많은 사랑들을 그 휘하에 거느리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랑들은 이 통치하는 사랑의 작은 갈래들이라 말하는 편이 나올 듯 하다. 이 많은 사랑들은 여러 다른 모양 아래 나타나나 여전히 통치하는 사랑 안에 포함되고, 한 왕국을 구성한다. 통치하는 사랑은 마치 몸의 경우 머리에 해당되고, 왕국의 경우 왕에 해당된다. 이 사랑은 그 외 사랑들을 지휘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목적들을 꼼꼼히 따져봄으로 여러 사랑들과 관계를 가지며, 결국 그 사랑 자신의 목적을 의도한다. 이 목적은 모든 사랑들이 중요시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직, 간접적으로 실행한다. 통치하는 사랑에 속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되고야 만다.

총괄적 측면에서의 사랑

인간이 우선적으로 사랑한 것은 그의 생각 안에, 그의 의지 안에 꾸준히 현존하고, 이것이 최고의 참으로 그의 생명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재물을 최고라 여겨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재물이 돈이든 어떤 취득물이든 그것을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에 그의 관심은 온통 집중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달성했을 때, 그는 내향적으로 심히 기뻐하고, 그것을 잃었을 때 내향적으로 무척 슬퍼한다. 그 이유가 그의 심정이 그것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만사에 앞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사에서 시시콜콜 자신만을 염두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 그 이유가 그의 생명은 자아를 위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가 그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 각각에서도 그 목적을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의지 안에 있는데, 제아무리 어떤 것에 바빠 있다해도 마치 그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해도 흐르고 있는 시냇물 처럼 그를 끌어 당기고 끌고 가고야 만다. 그 이유가 그 사랑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인 바, 또 다른 것에서도 같은 것을 보고 있다; 이것에 따라 그는 자기를 이끌든지, 또는 행동을 펼치든지 한다.

요컨대 인간은 자기 삶을 통치하는 것과 꼭 같은 품질 속에

총괄적 측면에서의 사랑

있다. 이를 수단으로 그는 타인과 차별된다. 만일 그가 선한 자라면, 그의 천국의 품성에 따라 그의 통치하는 사랑이 형성되어진다. 이와 반대로 그가 악한 자라면, 그의 지옥의 본성에 따라 형성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참 의지, 그의 고유 의 자아, 그리고 그의 인격을 구성한다. 그 이유가 이것이 그의 생명의 참 실재이고 이것은 사후 바뀌어질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인간 자신이기 때문이다.

즐거움, 만족함, 행복함으로부터의 모든 느낌은 그의 통치하는 사랑으로부터 이 사랑에 의거 각자에게 파생되어진다. 그 이유가 인간이 사랑하는 것을 두고 그는 즐겁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가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는 즐겁다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나 어쨌든 이것은 그의 생명으로부터의 즐거움은 아니다. 사랑으로부터의 즐거움은 인간의 평가에서 선인 것이다. 그러나 즐겁지 않을 경우 그는 악으로 간주한다.

두 사랑이 있다. 이 사랑들은 모든 선들과 진리들의 참 원천이고 이 사랑으로부터 존재한다. 악과 거짓의 원천이 되는 두 사랑들도 있다. 모든 선들과 진리들이 근원을 삼는 두 사랑들은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그리고 모든 악들과 거짓들이 발생하는 두 사랑들은 자아를 사랑함

총괄적 측면에서의 사랑

과 세상을 사랑함이다. 이 후자의 사랑들은 전자의 사랑들에 직반대되고 있다.

두 사랑으로부터 모든 선들과 진리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바대로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고, 인간과 더불어 천국을 구성하는 바, 이 두 사랑은 천국을 통치한다. 그리고 이 두 사랑이 인간과 더불어 천국을 구성하는 바, 두 사랑은 인간과 더불어 교회를 구성한다. 모든 악들과 거짓들이 진행되는 두 사랑은 위에서 말한 바대로 자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인데 인간과 더불어 지옥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지옥 역시 통치한다.

모든 선들과 진리들이 있는 두 사랑들, 이미 주목한 바 같이 천국의 사랑들이고, 내적, 영적 인간을 형성하고 열리어 있다. 그 이유가 그 사랑들은 내적, 영적 인간 안에 주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악들과 거짓들을 발생하게 하는 두 사랑들, 이것들이 강제해질 경우, 내적, 영적 인간을 닫히게 하고 파괴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통치력과 범위에 비례하여 인간을 자연적, 감각적으로 되게 한다.

5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The Love of Self and The Love of The World)



자아 사랑은 자신만이 잘되기를 바라고 자아를 위해서 타인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을 뺀다면 타인의 잘됨은 바라지 않는다. 이 범주에는 교회나 자기 나라, 사회나 동료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사랑이 선을 행할 경우도 있는데, 그 목적은 자신의 명성, 영예, 존경 따위를 얻으려는 절차상의 선행일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선행을 실시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영예나 명성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자기 심중에 이렇게 말한다. ‘결과가 고작 이것이나?’,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말이나?’... ‘도대체 내게 올 이득이 뭐란 말인가?’ 곧이어 그는 실시하던 선행을 집어치운다. 이로부터 명백한 바, 자아를 사랑함에 있는 자는 교회도, 나라도, 사회도, 동료도,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것만 챙긴다는 것이다.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인간이 자아를 사랑함 안에 있으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뜻할 경우, 그는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공동의 최상의 것을 생각지도 않는 바, 주님께 관련한 것은 더 더욱 아니고 오로지 자신과 자신에 속하는 것에만 집착한다. 그러므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사건건 자신과 자신에 속한 것을 위해서 이다. 그래서 만일 그가 공공의 최상의 것과 이웃을 위하여 했다면, 그것은 단지 겉모양새를 갖추려해서 이었을 뿐이다.

위에서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에 속한 것을 위하여 라고 말해졌는데, 그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에게 딸린 것들까지 사랑하려들기 때문에서 이다. 여기서 그에게 속한 것들이란 세부적으로 나열하면, 자식, 손자 등등, 자신과 하나를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뜻한다. 이런 것들을 사랑함은 자아를 사랑함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 이유가 인간은 그것들을 바라보건대 마치 자신 안에 있는 냥, 자신이 그것들 안에 있는 듯 바라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것이라 부르는 것들 사이에서 그는 아첨하는 말을 달콤히 듣고, 존경도 받고 숭배받기도 한다.

자아를 사랑함 안에 있는 자는 이웃을 자신과 비교하여 경멸하고, 이웃이 자기의 환심을 사려들지 않는다거나, 자기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를 존경하는 눈빛이 없을 경우, 자기를 숭배 않는 것 같으면 그 이웃을 적으로 간주해버린다. 더욱 더 자아 사랑에 깊이 빠져 있을 경우, 위와 같은 것을 빌미로 이웃을 미워하고 박해한다. 심할 경우, 복수심에 불타고 이웃을 파멸로 치닫게 한다. 이런 인물은 결국은 잔인함에서 즐거움을 찾고야 한다.

자아 사랑의 품질은 천국의 사랑과 비교해 봄으로부터 나타난다. 천국의 사랑은 선용을 위해 선용을 사랑함에, 즉 사람이 교회나 사회, 동료에 선을 실시하되 선 자체를 사랑함에 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함 때문에 선을 사랑하는 자도 위와 마찬가지로 자기 하인들을 사랑하지만, 그 목적은 자기를 잘 섬기게 하려는데 있다. 이로부터 다음 사항이 수반되는 바, 자아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은 교회나 사회나 자기 동료가 자기를 섬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들 위에 자신을 둔다. 그리고 자기 아래 그들의 위치를 정한다.

누군가가 천국의 사랑 안에 있는 한, 즉 그가 선용과 선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시함에서 심정으로 일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만큼 그는 주님에 의해 인도되어 진다. 그 이유가 이것은 주님이 계시는 사랑이요 그분으로부터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아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다면, 있는 정도 만큼 그는 자신에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의해 인도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 의해 인도되는 만큼 그는 그의 고유 자아에 의해 인도되는 셈이다. 그리고 인간의 자아는 악 밖에 더 없다. 그것은 인간의 유전적 악이고, 이 악은 하느님보다 자신을, 천국 보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있다.

자아를 사랑함이 위와 같은 특성을 지녔기에 행여 이 사랑에 지배권이 주어질 경우, 또는 바깥쪽 여건에서 그 사랑을 제약 하던 것이 제거될 경우, 다시 말해 법이나 그에 따른 처벌이 없다면, 혹은 명성이나 영예, 이득 등등에 대한 손실이 없다면, 이 사랑은 곧두박질치듯 하는 모습으로 돌진하여 온 세상 뿐 아니라 천국도, 아예 신성 위에 까지 군림하려 든다. 그 이유가 그런 것에는 경계선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비록 자연계에서는 위에 언급했듯 지배력이나 바깥쪽 제약 같은 것으로 튀어나오지 못해서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어쨌든 자아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안에 깊숙이 감추여 놓여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인물이 제약하는 것에 마주치면, 그는 그 제약이 풀릴 때까지 멈추기는 한다. 이런 사랑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악하고 무절제한 욕망을 자신 안에 비밀리에 숨겨 놓고 있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한다. 위 내용이 실지의 경우이다는 것은 세상의 이런 부류들, 즉 권력을 휘두는 이들, 왕으로부터, 바깥쪽 제약이나 불가능이 존재 하지 않는 자, 즉 어떤 재갈도 물려지지 않은 자로부터, 또는 성공으로 면류관을 쓰고 있는 한, 돌진하여 성읍과 왕국들을 복종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시키려한 바, 무제한의 권력과 영광을 열망하는 왕 같은 자들로부터 미루어 이를 짐작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한걸음 더 나아가, 천국 안으로 자기의 통치를 밀어 넣고 아예 주님의 신성한 권능을 내놓으라 하기 조차 한다. 그리고도 이를 넘어 돌격하기를 열망한다.

통치를 실행하는데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 하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자아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통치의 이 두 종류는 그것들의 본질상 서로 직반대되어 있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통치를 실시하는 사람은 모든 이에게 선을 의도한다; 그리고 그는 유용한 목적을 완성하는 것 외 바랄 것이 없다. 고로 그는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을 사랑한다. 타인에게 봉사함은 선을 행함을 뜻한다, 그리고 이웃이 잘되기를 기꺼이 바라는 것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선용을 수행한다. 이것이 그의 사랑이요 그의 심정을 즐거웁게 하는 일들이다. 이런 인물은 또한 자기가 존경받는 높은 지위로 드높혀질 때도 영예의 높은 자리 때문이 아닌 더 큰 선용이 실시되었음이 증명됨에 즐거워 할 뿐이다. 이런 종류의 통치가 천국들 안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아를 사랑함으로부터 통치를 실시하는 자는 자신과 자기에게 속하는 이들에게 외에는 누구에게도 선을 의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가 성취하는 선용이란 고작 자신의 영예와 영광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다. 이 선용이 그가 아는 선용의 기준이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다. 그러므로 그가 타인에게 봉사하는 목적은 봉사함의 신세를 진 그들이 이 봉사에 감사해 행여 자기를 떠받들지 모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는 영예를 추구한다, 이는 그가 행할지 모르는 선 자체를 위하여가 아니다. 단지 그가 높은 지위를 점령하고 영광을 굽어 모으고, 이것으로 그의 심정에 즐거움을 생산하고 싶어서이다.

이 통치하는 사랑은 사후에도 모든 이에게 남아 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통치를 실행한 사람은 천국들 안에서 그에게 통치가 위탁된다. 그럼에도 거기서는 통치란 단어는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 이유가 그들은 공익과 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통치할 때,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아 사랑을 바탕으로 삼아 통치를 실시했던 이들은 사후 지옥 안에 있고, 그들은 천박한 노예로 산다.

자아 사랑에 있는 사람에 관해서는 위로부터 알았으리라 생각된다. 한 가지 더 보텔 것은 누가 자아 사랑을 자기의 동력원으로 삼고 있는지는 그의 외관 가지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그가 오만하다거나 온유하다거나 하는 외관으로 결정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위에서 언급된 속성은 그의 내적 인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자기들의 내면들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외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적 인간은 공동의 최상의 것과 이웃을 사랑함에 속하는 것들로 덮혀 씌워져 있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내면과 외면은 반대되고 있다. 자아만을 사랑하는 자라해도 자기를 위해 이웃에 선을 베풀 수 있다. 그 이유가 그들도 모두에게 최상이 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만인에게 감명을 준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기 때문, 고로 자기들이 선행을 베풀면 그에 비례해 자기들이 사랑받고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어쨌든 그런 선행일지라도 감명을 주는 이유는 천국은 이런 사랑 안으로 흘러들기 때문에서 이다.

자아 사랑 안에 있는 이들에게 속하는 악들을 일반적으로 몇 개 나열한다면, 타인을 경멸함, 시기함, 자기를 예쁘게 보지 않는 이들을 적대시함, 갖가지 미워함, 복수, 사기, 무자비함, 잔인함 등등이 있다. 이런 악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신성을 경멸함, 신성한 것, 즉 교회의 선들과 진리들을 우습게 여김도 늘 따라붙어 있다. 그리고 이런 신성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입술로만 그럴 뿐 심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악들이 자아 사랑으로부터 진행되듯, 비슷한 거짓들 역시 그것으로부터 근원된다.

세상을 사랑함은 갖가지 술책을 써서라도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바램에 존재한다. 그리고 재물 위에 자신을 자리잡아 앉히고, 자신의 자아가 영적 사랑으로부터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이웃 사랑- 즉 천국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방관하고 그 대신 세상적인 것에 의해 자신을 이끌어 간다.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은 다양한 계락을 써서 타인들의 선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이웃의 선을 가볍게 여기고 잔피와 사기를 동원해 타인의 선을 가로채려 고심한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타인의 선들을 몹시 탐낸다. 그래서 타인의 선을 가로채는데 따른 범법 행위에 안전망이 쳐지고, 명성을 잃을 염려도 없게 되면 실제로 강도짓을 하고 약탈도 서슴치 않는다.

세상을 사랑함은 자아를 사랑함 만큼이나 천국적 사랑에 반대되어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자아 사랑만큼 규모적으로 크게 감추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랑도 종류가 많다. 존경받는 지위에 도달하려고 재물을 사랑한다. 순서를 바꾸어 재물을 얻고져 영예와 명성의 지위부터 사랑한다. 다양한 용도로 재물을 사용하여 그로부터 즐거움을 얻고자 재물을 사랑한다. 재물 자체가 좋아 재물을 사랑한다. (이와 같은 것이 수전노의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의 도움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는 유용함(use)이다. 이 목적 또는 유용함으로부터 사랑의 품질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사랑은 사랑이 존재하기 위한 목적과 똑같은 품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수단들에 불과하다.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한마디로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직반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은 지옥의 사랑들이다. 이 사랑들이 지옥을 통치한다, 동시에 인간 안에서 지옥을 구성한다. 그러나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천국적 사랑들이다. 이 사랑들이 천국을 통치하고, 인간과 더불어 천국을 구성한다.

이상 말해 온 것으로부터 알게되는 바, 모든 악들은 위 두 사랑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랑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 문단에서 나열한 악들은 일반적 악들이고 세세한 악들은 열거되지 않았으나 세세한 것들은 일반적 악들로부터 파생된다. 이로 미루어 알게되는 것은, 인간이 이 두 사랑들 안에서 태어난 바, 그는 모든 종류의 악들 안에서 태어나진다는 것이다.

인간이 악들을 알기 위하여서 그는 악들의 근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악들을 알지 않으면 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품질도 알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악들의 두 근원이 여기에서 취급된 것이다.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6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Love towards the Neighbour, or Charity)



‘이웃’이라는 단어에 의해 무엇이 의미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 같다. 그 이유가 사랑되어지게 되는 것이 ‘이웃’이고, ‘이웃’을 향하여 선행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않으면, 선행은 분별 없이 실시될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똑같은 방식을 적용할런지 모른다. 그러면 선행은 선행이 아닌 것이 되고야 만다. 즉 악한 자는 받은 혜택을 수단으로 이웃에게 더욱 악을 행하고, 선한 자는 선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흔히 상상하는 것은, 모든 사람 각각은 똑같은 수준에서 이웃이다는 것, 선은 도움을 요구하는 모든 이에게 행해져야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인간의 생명의 품질을 검사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맞추어 선행을 실시해야 한다. 내적 교회인은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한다. 고로 총명하다. 그러나 외적 교회인은 구별하는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분별없이 행동한다.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이웃 안에 있는 것을 구분함에 교인들은 잘 익숙해 있어야 하고 이 구분함은 이웃 각자와 더불어 있는 선에 의거 실시되어야 한다.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기에, 주님 자신은 최고의 의미에서, 그 무엇과 비교 안되는 탁월한 수준에서 이웃이시고, 이 이웃으로부터 이웃이라는 관계가 근원된다. 이로부터 뒤따르는 것은, 각 사람은 주님의 어떤 것을 가진 만큼에서 이웃이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방식으로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선을 받지 않는다. 즉 이 사람이 받는 선과 저 사람이 받는 선은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천국들에 있는 모든 사람, 땅 위에 있는 선을 지닌 모든 사람은 선에 관한 한 다르기 때문이다. 어떠한 두 사람도 완전히 똑같은 선을 결코 가지지 않는다. 선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각각의 선이 단독으로도 생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다양함들, 즉 이웃에 있는 구분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주님을 영접함에 따라, 즉 그분으로부터 선을 받음에 따라 있어지는 바, 이는 어느 인간도, 어느 천사도 아주 총체적 방식 외에는 세세한 방식은 결코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교회인이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에 따라 사는 것 외에 더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이 각자의 선은 다양한 바, 선의 품질은 이웃의 등급을 결정하고 이것에 맞추어 누군가는 이웃이 된다. 이것이 왜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그러한지는 주님의 비유로부터도 쉽게 감지된다. 즉 누군가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는 그를 절반쯤 죽여 놓았다, 때마침 거기를 지나는 성직자와 레위인이 그를 못본척 했으나 그를 발견한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싸매서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를 잘 돌볼 것을 여관 주인에게 부탁까지 했다. 이 사마리아인, 그가 선행의 선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웃이라 불리우고 있다 (누가 10:29-37). 이로부터 사마리아인은 선 안에 있는 이웃이다. 그가 상처에 부은 기름과 포도주 역시 선과 선으로부터의 진리를 의미한다.

지금 위에서 말한 바로부터 명백해지는 것은 보편적 의미에서의 선이 이웃이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주님으로부터 그와 더불어 있는 선의 품질에 따라 이웃이라는 말이다. 선이 이웃인 까닭에, 사랑이 이웃이다. 그 이유는 모든 선은 사랑에 속하기 때문에서 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각자는 그가 주님으로부터 가지는 사랑의 품질에 따라 이웃인 것이다.

누군가를 이웃이 되게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모든 이 각자는 그의 사랑의 품질에 따라 이웃이라는 것은 자아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선명해질지 모른다. 이들은 자기들을 가장 많이 사랑한 이들, 또한 이 사랑의 정도에 비례해 누군가를 자기들에 속하는 이웃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인정한다. 그들은 이들을 포옹한다. 그들에게 키스한다. 그들에게 선을 행한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다. 아니, 악이 있는 그들을 타인들에 앞서 있는 이웃이라 부른다. 여타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랑한 정도에 비례해 이웃으로 인정한다. 즉 자기를 향한 그들의 사랑의 크기와 품질에 따라 이웃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다. 이런 인물은 이웃의 근원을 자신에게 놓고 있다. 이와 달리 타인에 앞서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 이들, 즉 주님의 왕국 속에 있는 이들의 경우,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해야 할 그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웃의 근원을 가진다. 그들은 모든 이 각자를 상대가 지닌 주님을 사랑함의 품질에 따라, 곧 주님으로부터 어떤 이웃인지를 가늠한다. 이리하여 분명해지는 것은, 교인은 주님으로부터 이웃의 근원을 끌어내야 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 각자는 주님으로부터 있는 선에 따라 이웃이라는 것, 결과적으로 선 자체가 이웃이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마태 25:34-40); 그분은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그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옷을 주었고, 그를 방문했었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거기까지도 왔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그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것을 행했기에 그들은 그것을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 구절에 담긴 선의 여섯 종류는 영적 의미에서 이해해 보건대, 이웃의 다양한 모든 종류들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이 내포되어 있다. 이로부터서도 확실한 바, 선이 사랑되어질 때, 주님 자신 역시 사랑되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주님은 선 자체이시고, 선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부터 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웃은 단 한 사람을 두고 말해진듯 여겨지지만 여러 사람, 즉 단체 차원에서의 이웃도 있다. 즉 보다 작은 사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회, 나라, 교회, 주님의 왕국, 무엇보다 주님 자신 역시 이웃이다. 열거한 이들 모두는 선을 사랑함으로부터 실시되어야 하는 이웃이다. 그들 역시 승강하는 등급의 서열에 있다. 숫자가 적은 사회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사회보다 등급이 낮다. 그러나 한 개인 보다는 훨씬 높다. 사회 보다 나라는 더 높은 등급이다. 교회는 이보다 더 높다. 주님의 왕국은 교회보다 더 높고, 최고의 등급에는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승강하는 등급은 마치 사다리의 층계와 비슷하다. 이 사다리 꼭대기에 주님이 계신다.

한 사회는 한 개인 보다 더 큰 이웃이 된다. 그 이유는 다수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선행은 한 개인에게 실시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즉 사회 안에서 널리 우세한 선의 품질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곧바른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에 대한 선행은 분명 방식이 달라야 할 것이다. 선을 사랑함으로부터 사회의 선이 돌보아질 때 그 사회는 사랑되어진다.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각자의 나라는 사회보다 더 큰 이웃이 된다. 그 이유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같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각자는 나라 안에서 태어나고 먹여지고 보호되기 때문이다. 선은 각자의 나라의 필요에 부응해 사랑으로부터 실시되어야 한다. 간략히 말해 나라의 지탱 유지와 나라 안의 사람들의 시민적 영적 생활에 관심을 맞추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자, 자기 나라에 유용한 도움을 기꺼이 제공하려 할 때, 그는 나라를 향해 선을 행하는 것이 된다. 그가 저 세상에 올 때, 그는 주님의 나라를 사랑한다. 그 이유가 거기서의 그의 나라는 주님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 이유가 주님은 그분의 왕국에서 모든 것 중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각자의 나라 보다 더 큰 이웃이 된다. 그 이유가 교회를 돌보는 사람은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고,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으로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가 천국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행복은 타인을 위해 바래야 하고 뜻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왕국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이웃이다. 그 이유가 주님의 왕국은 선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천국에서이든 지상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에서이든 그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왕국은 다양한 품질의 선의 집합, 즉 총체적인 선이다. 그래서 이 선이 사랑되어질 때 선 안에 있는 모든 이도 역시 사랑되어지는 셈이다.

이상 살핀 내용이 이웃에 관한 등급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그들의 사랑은 위와 같은 등급에 따라 승강한다. 이 등급은 연속적인 질서로 되어 있다. 이 질서에서 앞서는 것, 또는 보다 높은 것이 낮은 것, 또는 뒤에 있는 것에 우선하여 실시된다. 최고 높은 등급에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어느 등급이든 각 등급의 목적은 주님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무엇보다 우선 사랑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더 알 수 있는 바, 주님을 사랑함은 어떤 방법에서이든 이웃 사랑과 그 자체 결합하여 있다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 모든 이 각자는 자신에게 이웃이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이 각자는 자신을 우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선행에 관한 교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다. 모든 이는 자신과 자신에게 딸린 사람들의 필요한 것, 즉 음식, 의복, 주거지, 여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여 자신을 돌봄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가 있는 곳에서의 시민 생활의 필수일 것이다. 이 준비는 며칠 뿐 아니라 먼훗날 것 까지도 포함해 이르는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말이다. 만일 그가 위와 같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는 선행을 실시할 조건에 있을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자기부터 필요하니까 말이다.

무슨 방법에서이든, 모든 이는 자신에게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래 비교 고찰로 나타날런지 모른다. 모든 이는 각자의 육체를 위해 음식과 의복을 준비해야 한다. 건전한 마음이 건강한 몸 안에 있기 위해 몸 관리가 먼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는 그의 마음을 위한 마음의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즉 그는 총명과 지혜에 속하는 것들로 마음에 음식을 공급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자기 동료나 사회, 나라, 교회, 주님에게 까지 쓸모 있는 인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원한 복지 까지도 돌보는 셈이다. 이로부터 명백한 바, 첫째 일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목적을 위하여 행동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모든 것은 목적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먼저 놓는 사람의 경우와도 비슷할 것이다. 기초는 집을 위해 반드시 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집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자기를 첫 번째 이웃으로 찾는 사람은 자기를 기초로서 간주한 것은 맞으나 목적으로서의 집도, 거주지도 아닌 것과 같다. 그렇지만 거주함이 첫째 목적이자 궁극의 목적일 때, 기초와 더불어 그 집은 목적을 향한 수단일 따름이다.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목적(end)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웃이라 생각해도 좋은지와 어떻게 자신을 첫째로 돌보아야 하는 가를 설명한다. 만일 누군가의 목적이 타인 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재물 자체의 축적만이 목적이라면, 또는 쾌락만을 위하여라면, 타인 위에 최고 실력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의 목적은 악이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의 목적이 자기 동료나 사회, 또는 나라, 교회에 유익하게 쓸 목적으로 재물을 쌓았다면, 공익을 목적으로 공직을 획득했다면, 그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셈이다.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참 목적이 인간을 만든다. 그 이유가 그의 목적이 그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이는 그의 첫째요 마지막 제의 목적으로 그가 무엇보다 먼저 사랑한 것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는 이웃에 관해 말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 즉 선행(charity)에 관해 말할 것이다.

많은 이들에 의해 생각되어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은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주는 것, 궁핍한 자를 돕는 것, 누구에게나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어쨌든 선행은 신중함을 가지고 행동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을 위하여 선은 선행으로부터 결과되어야 한다. 가난한 악행 자나 악행 자의 필요한 것을 도와 주어 채워진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이웃에게 악을 실시한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셈이 된다. 그가 악한 자에게 제공하는 도움을 통해 그는 악 안에 있음을 그에게 확증시켜 주는 셈이다. 게다가 그에게 타인을 향해 악을 행할 수단을 공급하는 셈이다. 그러나 선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이와는 아주 다르다.

선행은 위의 경우 같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대한 것 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 그 이유가 선행은 모든 일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데, 각자의 공직에서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데에도 있기 때문이다. 고로 만일 판사가 정의를 위하여 정당하게 판결을 실시했다면, 그는 선행을 실시한 것이다. 만일 그가 죄인을 처벌하고, 순진한 자를 석방한다면, 그는 선행을 실행하고 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행함에서 그는 동료들의 시민의 복지를, 나라의 복지를 돌본 셈이다. 진리를 가르치고 선으로 인도하는 성직자는 진리와 선을 위해 선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과 세상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행할 경우 그는 선행을 실시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웃을 사랑함이 아닌 자신을 사랑함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는 판사가 아니더라도, 혹은 그가 공직에 있든, 아니 있든 원칙은 동일하다. 고로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하인과 주인,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서도, 또는 신하와 왕,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의무의 견지에서 의무에 충실한 것, 정당함의 견지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올바름을 고수하는 것, 이 모두가 선행의 실시이다.

이웃 사랑에 속하는 이런 것들, 즉 선행에 속하는 것들은 위에서 말했던 바대로 모든 사람이 이웃이되 그 이웃을 대접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상대적으로 작든, 혹은 크든 사회는 개인 보다 더 높은 등급에 있다. 나라는 사회 보다 더 높다. 주님의 왕국은 나라 보다 더 높다. 주님 자신은 모든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웃이다. 그리고 보편적 의미에서 주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선은 이웃이다. 결과적으로 성실과 정의가 이웃이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선을 행하든 선을 위해서라면, 성실과 공정함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의롭게 행동한다면,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실시하고 있다. 그가 선인 것, 진실인 것, 정의로운 것을 사랑함으로부터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 성실, 정의가 들어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선행은 내적 애착이고, 이 애착으로부터 인간은 선을 뜻하고 참으로 어떤 댓가도 없이 선을 행한다. 내적 애착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이들과 더불어서의 선행은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뜻하고 행하는 모든 것 안에 있다. 선이 자기에게 이웃이 되어 있을 때, 사람이든 천사이든 그의 내면에 관련해 선행이다. 이렇게 선행의 범주는 대단히 폭이 넓다.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을 목적으로 지닌 이들이 선행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 또는 선행

있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들은 선행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천국은 어떤 보상과는 관계없이 선을 이웃에 뜻하고 행한다는 것, 천국에 있는 천사들에 속해 있는 선행에 대한 애착 안에는 더 할 수 없는 행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라는 것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그들은 영예와 재물의 결과인 영광으로부터 발생하는 즐거움을 박탈 당하면 더 이상 기쁨은 자기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기쁨이 사라진 후에야 천국의 기쁨은 시작되고 무한하게 넘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른다.



7

신앙

(Faith)



본질적 측면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는 그가 선행이 무엇인지 먼저 알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이유가 신앙은 선행이 있지 않는 곳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선행은 신앙과 하나를 이룬다. 마치 이는 선이 진리와 하나를 이루는 것과 같다. 인간은 사랑하는 것, 즉 그가 귀히 여겨 애지중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눈에서는 선이고, 그가 믿는 것 역시 자기 눈에서는 진리이다. 어쨌든 선과 진리의 합일이 있듯, 선행과 신앙에서도 그와 꼭 같은 합일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합일에 관한 속성은 제1장의 선과 진리 편에서 이미 상술했다.

선행과 신앙의 합일은 인간과 더불어 의지와 이해성의 합일과 동일하다. 그 이유가 이 두 능력이 선과 진리를 받기 때문

신앙

이다. 즉 의지는 선을 받고, 이해성은 진리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이 두 능력들은 선행과 신앙을 받는다. 그 이유가 선은 선행에 속하고, 진리는 신앙에 속하기 때문이다. 선행과 신앙이 사람과 더불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눈치채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와 더불어 있고, 자기 안에 있기에 그것들은 그의 의지와 이해성 외에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 그 이유가 인간의 생명 전체가 이 능력 안에 있고, 그것들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바깥 뜰에 불과하여 거기에는 의지와 이해성 안으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수집되어 있다. 이로부터 명백한 바, 신앙과 선행의 합일은 의지와 이해성의 합일과 똑같다는 점이다. 이 합일에 관한 속성은 의지와 이해성 편에서 이미 상술했다.

인간이 자기가 알고 지각한 것을 뜻할 때, 선행은 사람 안에서 신앙과 결합되어 있다. 뜻함은 선행에 속하고, 앎과 지각함은 신앙에 속한다. 인간이 자기가 알고 지각한 것을 뜻하고 사랑할 때 신앙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것이 되어간다. 그러나 한 동안 그것은 사람 밖에 있다.

신앙이 영적이지 않으면 신앙은 인간과 더불어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신앙이 그의 사랑의 신하가 되지 않으면 신앙은

신앙

영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가 진리와 선을 살아내는 것을 사랑할 때, 즉 말씀에서 명령한 일련의 것들에 따라 사는 것을 사랑할 때, 신앙은 인간의 사랑의 신하가 되어간다.

신앙은 진리가 진리이기에 진리를 뜻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진리에 애착함이다. 그리고 진리가 진리이기에 진리를 뜻함은 인간의 영적 평면을 구성한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 평면과 아주 동떨어져 있다. 인간의 자연적 평면은 진리가 진리이기에 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영예나 명성과 이득을 위하여 진리를 뜻할 뿐이다.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추상적으로 진리는 영적 평면을 구성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신성으로부터 이기 때문에서 이다. 신성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은 영적 평면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을 통하여 인간에게 결합되어진다. 그 이유가 사랑은 영적 결합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많은 것을 알고 생각하고 이해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자기 사랑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목상할 때 자신으로부터 내 던진다. 육체의 삶 이후 그가 영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내 던진다. 그 이유가 인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 것만이 그의 영 안에 남기 때문에서 이다. 그 외 나머지는 사후 이상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사랑에 속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집 밖으로 내 던진다. 여기서 '영 안에' 라고 말해졌는데, 그 이유는 사후 인간은

신앙

영으로서 살기 때문에서 이다.

태양의 열과 빛의 예를 가지고 선행에 속하는 선과 신앙에 속하는 진리에 관련해 어떠한 관념을 형성해 볼 수 있다. 태양으로부터 생긴 빛이 열과 결합되어 있을 때, 마치 봄철과 여름 같이, 지상의 표면의 모든 것은 싹이 트고 꽃을 피운다. 그러나 빛 안에 열이 없을 때, 지상의 만물은 활기가 없고 죽게 된다. 영적 빛은 신앙의 진리이고 영적 열은 사랑이다. 이를 가지고 교회인을 놓고 어떤 생각을 형성해 볼 수 있다. 즉 그 사람과 더불어 신앙이 선행과 결합되고 있을 경우, 그는 정원이나 낙원 같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신앙이 선행에 결합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는 사막이나 눈으로 덮힌 토지 같다.

확신함, 또는 신뢰함은 신앙 측면에 속하고 구원받는데 필수 요소임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신앙만(faith alone)이 절대 요소일 뿐 선행을 배제한다면 그 확신과 신뢰는 영적이 아닌 자연적 수준의 것일 뿐이다. 영적 확신과 신뢰는 그것의 본질과 생명을 사랑의 선으로부터 끌어낼 뿐 분리되어 홀로 있는 신앙의 진리로부터는 아니다. 이런 신앙의 확신은 죽어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확신은 악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불가능하다. 구원은 아버지와 더불어 주님의 공로의 탓으로 돌려야 할 뿐, 인간 삶의 품질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신앙 논리의

신앙

확신은 진리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적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지침을 실행해야 구원되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말씀, 즉 교회의 교리가 가르치는 일련의 것들을 믿는데도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은 없을 경우도 겉모양새로는 신앙이 있는 듯 나타난다. 어떤 이의 경우는 자기는 이런 신앙을 통하여 구원되어졌다고 상상조차 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 한쪽만으로 구원될 자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이것은 설득에 의한 신앙이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추가 설명한다.

설득에 의한 신앙, 이것은 말씀과 교회의 교리가 믿어지고 사랑되어지는 이유가 진리를 위하여, 그리고 진리에 의거 살기 위하여서가 아닌, 말씀과 교리를 연구해 학식을 쌓아 명성을 날리기 위하여, 소득의 한 수단으로, 어느 직업 같이 생계수단 등등이 목적이 되어 있을 경우 야기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는 이들은 실지로는 주님을 찾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없고 오로지 현실에 집착해 자신의 이득에 관심을 집중할 뿐이다. 세상의 위대한 것들에 대망을 품은 이들, 그래서 많은 것들에 군침을 흘리는 이들은 세상적인 것에 욕심이 없고 그래서 타인의 것에 탐냄이 없는 이들보다도 교회의 교리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이라고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훨씬 더 강력할 때가 많다. 그 이유인즉 전자에 속한

신앙

우리들은 교회의 교리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의 한 수단일 뿐이어서 이다. 목적이 탐욕스러운 만큼, 그 수단들은 더 사랑되고 더욱 믿어지기 마련이다. 이를 본질적으로 들여다 볼 경우 다음 같다. 위의 인물들이 자아와 세상 사랑의 불안에 있는 만큼, 그리고 그 불로부터 말하고 설교하고 행동하는 만큼, 그들은 설득의 위 원리 안에 있는 셈이다, 게다가 그들은 어떤 것이 그렇다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다. 설사 그들이 이러한 사랑의 불에 있지 않다고 해도 그들은 믿는 것마저도 거의 없다. 많은 자들이 전혀 믿지도 않는다. 이로부터 분명한 바, 설득에 의한 신앙은 입술의 신앙이고 심정의 신앙이 아니다. 고로 본질적으로 신앙이 없다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설득에 의해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떤 내적 계발로부터도 알지 못한다. 아니, 이들은 만일 대중이 자기들의 설득력에 먹혀 자기들의 말을 믿는다면 진리이든 거짓이든 상관없다. 그 이유가 이들은 진리가 진리이기에 진리를 위한 진리에 애착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들이 확보한 명예나 이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즉각 믿음 마저 내 팽개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 이유가 설득에 의한 신앙은 인간과 더불어 내향적으로 있지 않고, 외향적, 즉 기억에만 머물고 있을 뿐이고 이 기억으로부터 가르침도 도출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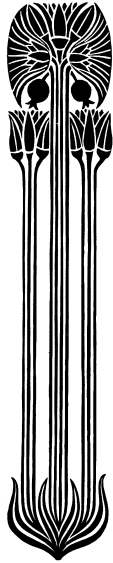
신앙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은 그것이 지닌 진리와 더불어 사후 사라진다. 그 이유가 인간 안에서 내향적으로, 즉 선 안에 뿌리를 내렸던 신앙에 속한 것, 고로 그의 삶 속의 실상이 되어갔던 신앙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설득에 의한 신앙 안에 있던 이들이 마태복음 7장 22,23절에서 이렇게 서술되고 있다. "그 날에 많은 자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당신의 이름으로 악마를 내 쫓았고, 당신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6,27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당신께서는 우리의 도로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하는 바,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라.'" 위 인물들은 자기들의 등불에 기름을 지니지 않은 다섯 아둔한 처녀에 의해서도 의미되고 있다. "마침내 다섯 처녀가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대답하여 말하셨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마태 25:11,12)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의 선을 의미한다.

신앙





8

경건함

(Piety)

많은 이들은 영적인 삶, 즉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활은 경건함에, 바깥쪽 거룩함에, 세상을 단념함에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선행과 동떨어진 경건함, 내향의 거룩함을 제외한 외향의 거룩함, 세상에서의 일반적 생활을 별도의 문제로 치부한 세상을 단념함은 영적 삶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선행으로부터 흐르는 경건함. 내적 거룩함이 풍겨내는 외향의 거룩함. 세상과 짝을 이루는 세상적인 것을 단념함이 영적 삶의 구성요소라 말할 수 있다.

경건함은 신앙심 깊게 생각하고, 말함에 존재하고 있다. 주도면밀하게 기도함에도 있다. 겸손을 가지고 처신하는데 있다. 교회에 출석하는데 있다. 그리고 교회의 설교를 독실하게 경청하는 데에도 있다. 성찬에 자주 참가하는데도 있다. 신성한 예배에 참석하듯 교회의 의식도 같은 수준에서 참석하는데에도 있다. 그러나 선행의 삶은 이웃에 선을

경건함

뜻하고 행하는데에 있다. 그리고 정당하고 공정한 것의 원리로부터 행동함 안에, 그리고 선하고 참된 것을 모든 일에서, 모든 업무에서 실행함에 있다. 한마디로 선행의 삶은 홍익인간을 목표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신성한 예배는 일차적으로 선행의 삶 안에, 이차적으로 경건함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과 저것을 떼어놓는 사람, 즉 경건한 생활은 하면서 선행의 삶은 뒷전에 머물게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느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자신으로부터 생각할 뿐이다. 그 이유가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 관해서 골몰할 뿐 이웃에 대하여는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이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가 이웃의 품질과 꼭 같지 않는 이상, 그는 자기와 관련 맺지 않는다. 또한 그는 천국을 보상 차원에서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그의 마음 안에는 공적에 관한 생각이 있다. 또한 자아 사랑 뿐 아니라 선용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기 까지 한다. 이웃에 관한 것도 예외일리 없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죄없음 의식 안에 있는 신앙을 지닌다. 이상으로부터 나타날런지 모르는 것은 선행의 삶으로부터 분리된 경건한 생활은 신성한 예배에 있어야 하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태복음 6장 7,8절을 읽어보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경건함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느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바깥쪽 거룩함 역시 경건함과 같다. 그러나 내적 부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인간과 더불어 이 거룩함은 거룩하지 않다. 그 이유가 인간의 외적 부분의 품질은 그의 내적 부분의 품질에 따라 있어지기 때문이다, 전자는 후자로부터 생겨난다. 마치 행동이 그의 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바깥쪽 거룩함은 내적 거룩함에서 분리될 경우 자연적일 뿐, 영적이지 않다. 이런 이유로 자연적 거룩함은 선한 자에게 있는 만큼 사악한 자에게도 존재한다. 그리고 예배 전체를 이런 외적 의식에 두는 이들의 예배는 텅빈 예배,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들과 진리들은 인간이 알아야하고 믿어야하며 사랑되어야하는 참으로 거룩한 것들이다. 그 이유는 이것들은 신성으로부터 있고 신성은 그것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향의 거룩함은 선과 진리를 사랑함 안에 있는데, 그 이유는 선과 진리는 선이고 진리이기 때문, 그리고 내향의 거룩함은 정의와 성실함 안에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정의와 성실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위 같은 태도에서 위의 것을 사랑하는 만큼, 그 자신, 그의 예배는 영적이다. 그 이유는 그가 그것들을 알려하고 뜻하고 그것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위와 같은

경건함

태도에서 사랑하지 않는 만큼, 그와 그의 예배는 자연적이다. 그리고 그만큼 그는 알려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내적 예배로부터 분리된 외적 예배는 심장과 분리된 호흡이나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내적 예배로부터 흐르는 외적 예배는 심장과 긴밀히 결합된 호흡작용과 비슷하다.

세상을 단념함의 경우를 살펴보자. 많은 이들에 의해 믿어진 바, 세상을 포기함, 그리고 육 안에서가 아닌 영 안에서 생활함은 재물이나 명예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내 던지는데 있다고 한다. 하여, 꾸준하게 이리저리 배회하고, 하느님, 구원, 영원한 삶에 관해 경건히 묵상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경건한 책들을 많이 읽고, 참회도 거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을 단념함이 뜻하는 바가 아니다. 실지로 세상을 단념함은 하느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을 뜻한다. 그리고 사람이 그분의 계명들에 따라 살 때 하느님은 사랑받아진다. 인간이 공익(uses)을 수행할 때 이웃이 사랑되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천국의 생명을 받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가 세상 업무나 다양한 의무들을 이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일들로부터 격리된 삶은 생각 속의 삶이고, 사랑과 선행의 삶으로부터 분리된 신앙 속의 삶이다. 이런 삶 안에서 선을 뜻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함은 사멸한다. 이렇게 후자가 사멸할 때, 영적 생명은 기초없는 집 같아 점차 가라앉고,

경건함

균열이 생기며 비틀거리다 무너져 내린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임은 주님의 아래 말씀으로부터 분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그를 바위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신중한 사람에게 비유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유할 것이다; 또는 어떤 기초도 없이 지면 위에 짓는 자에 비유할 것이다.”

경건한 생활이 선행의 삶에 결합되어 있는 한, 경건한 생활은 쓸모가 있고, 주님에 의해 받아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이유가 선행의 삶이 제1순위의 삶이고, 이 삶이 경건한 삶의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경건한 생활이 내향의 거룩함으로부터 진행되는 한, 바깥쪽 경건함도 주님에 의해 받아지고 쓸모 있다. 그 이유가 내향의 거룩함이 경건함의 품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포기가 쓸모 있고 주님에 의해 받아지는 것은 세상의 포기가 세상 안에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그 이유가 세상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을 치워내는 이들에 의해 포기되어진다. 그리고 어느 직책에서 이든, 어느 사업을 하든, 자기에게 할당된 모든 일에서 내면으로부터 정의롭게, 성실하게 실시하는 이들에 의해 포기되어진다. 이 근원은 그가 올바르게,

경건함

신실하게, 정의를 행할 때. 그 사람의 생명 안에 주재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신성한 법들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9

양심

(Conscience)

양심은 특정한 종교를 자신 안에서 내향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그 종교로부터 인간에게 형성되어진다.

교회인과 더불어 양심은 말씀으로부터 신앙 속의 진리들을 통하여, 또는 말씀으로부터 파생된 교리로부터 심정에 이것들을 받아들임에 따라 형성되어진다. 인간이 신앙 속의 진리들에 친숙해지고, 그것들을 납득하고, 후에 그것을 뜻하고 행동할 때, 그는 양심을 받는다. 심정에 받아들임은 의지에 받음을 뜻한다. 그 이유가 인간의 의지는 소위 심정(heart)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가지는 이들을 두고 흔히 하는 말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심정으로부터 이다 듣기, 그들은 심정으로부터 행동한다 하고 말한다. 그들 역시 나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한 것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이 선과 진리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양심

한층 더 완전한 양심은 신앙 속의 진리들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계발된 이들과 더불어, 그리고 확실히 지각함에서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계발되거나 불분명하게 지각하는 이들에 비해 가능성이 더 크다.

인간의 진짜 영적 생명은 진정한 양심 안에 주재한다. 그 이유가 선행과 결합된 신앙이 양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물이 양심으로부터 행동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생명으로부터 행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양심에 반대되어 행동한다는 것은 자기의 참 생명에 반대되어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물이 양심에 일치하여 행동할 때, 그는 내적 복됨 안에, 평화의 고요함 안에 있다. 그리고 그가 양심에 거스르게 행동할 때, 그는 불안함 속에, 고통 속에 있다. 이 고통은 소위 양심을 갉아 먹는 고통이라 부른다.

인간은 선인 것으로부터의 양심, 올바른 것으로부터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 선인 것으로부터의 양심은 내적 인간의 양심이고, 올바른 것으로부터의 양심은 외적 인간의 양심이다. 선인 것으로부터의 양심은 내적 애착으로부터 신앙의 명령들에 따라 행동하는데 있다; 그러나 올바른 것으로부터의 양심은 외적 애착으로부터 시민적이고 도덕적인 법들에 따

양심

라 행동하는데 있다. 선인 것으로부터의 양심을 가지는 이들은 올바른 것으로부터의 양심 역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것으로부터서만 양심을 가지는 이들은 선인 것으로부터의 양심을 받을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역시 훈육 받음을 통해 그것을 받는다.

이웃을 향한 선행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양심은 진리로부터의 신앙을 통하여 형성되는 바, 이들은 진리로부터의 양심을 가진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양심은 진리를 사랑함을 통하여 형성되어진다. 후자의 양심은 더 높은 질서 안에 있고, 선으로부터 진리를 지각함이라 불리워진다. 진리로부터 양심을 가지는 이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으로부터 이다. 그러나 지각이라 불리는 더 높은 양심을 가지는 이들은 주님의 천적 왕국으로부터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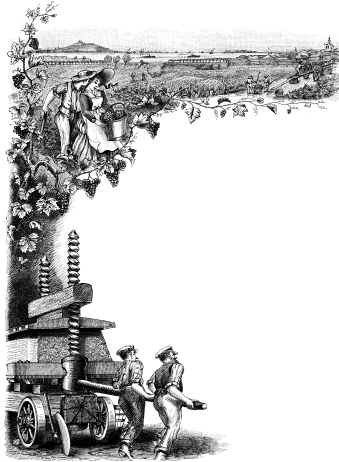
이 문단에서는 양심이 무엇인지를 예증하는 보기를 들어 보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물건을 소유했다면, 그런데 이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없을 경우, 그리하여 법 위반이라는 공포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들킬 경우 명예나 명성이 실추될 걱정을 놓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취득물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 주인의 것으로 되돌려 놓는다면, 그는 양심을 가진 것이다. 그는 선인 것을 위하여 선을 행했고,

양심

정의를 위하여 정당한 것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예를 열거해 보자. 만일 어떤 사람이 공직 자리를 두고 누군가와 경쟁할 때, 상대방이 자신에 비해 그 공직 업무에 더 합당하다 판단될 경우, 그가 나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대방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면, 그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양심이 없는 이들에 관한 것도 추측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양심을 지닌 이들의 거꾸로가 이에 해당된다. 즉 자신의 이권을 확보하려고 부정한 것을 정당한 것인 냥, 악한 것을 선인 냥 위장하는 이들은 양심이 없다. 이런 자들은 양심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그리고 만일 이들에게 양심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가르치려들면, 그 말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속성을 지닌 이들은 자신들과 세상 것을 위하여 집중할 뿐이다.

이 세상의 양심을 받지 못한 이들은 저 세상의 양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될 수 없다. 그 이유인즉, 이들은 천국을 놓을 평면, 즉 천국을 통하여 주님이 흘러들고, 이 흘러들을 통하여 그분이 역사를 펼치실 평면, 그리하여 그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평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양심은 천국이 유입됨을 위한 그릇이요 평면이기 때문이다.



10 자유 (Freedom)

모든 자유는 사랑에 속한다. 그 이유가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자유로이 행동에 기꺼이 옮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유는 의지에도 속한다. 그 이유가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부터 자유가 무엇인지 드러났을 것이다. 즉 자유는 사랑, 의지, 고로 인간의 생명에 속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유함으로부터 행동한 것은 마치 그것이 자아로부터 온듯 당사자에게 나타난다.

자유함에서 악을 행함도 비록 그것이 노예 신분이다 해도 자유 같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자아와 세상 사랑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들은 지옥으로부터 이다. 사후 이와 같은 자유는 실제로 노예 같이 되어 있다. 그 이유

자유

가 이 세상에서 이런 자유 속에 있어 왔던 이들이 사후 지옥에서 천한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로부터 선을 행하는 이들은 자유 자체의 구성요소가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유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사랑들은 천국 사랑들이다. 이 자유는 사후에도 남아 진짜 자유가 된다. 이것을 소유해왔던 사람은 아래 구절의 “집의 아들” 같이 천국에서 되어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에 묶인 종이다. 죄에 묶인 종은 집에 영원히 거주하지 못한다. 아들은 영원히 집에 머문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를 자유하게 만든다면, 너희는 실로 자유할 것이다.” (요한복음8:34-36)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악은 지옥으로부터 있기에, 자유는 주님에 의하여 인도받음에, 묶임은 지옥에 의하여 인도됨에 있다고 당연히 귀결된다.

인간은 악과 거짓을 생각하는 자유, 그리고 법의 제한이 없는 한, 악과 거짓들을 행할 자유를 가진다. 이것은 인간으로 개혁되어질 능력을 갖게 한다. 그 이유가 선들과 진리들이 그의 사랑 안에, 그의 의지 안에 이식되어 그의 생명의 부분이 되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그가 악과 거짓, 선과 진리 모두를 생각할 자유를 갖지 않으면 가능치 않기 때문이다. 이 자유는 주님에 의해 만인에게 수여되어 있다. 그래서 그가 악과 거짓을 거절하고 선과 진리를 생각하는 만큼에서 주님께서

자유

선과 진리들을 그의 사랑 안에, 그의 의지 안에, 결과적으로 그의 생명 안에 이식해 주시어 그를 개혁한다. 자유함에서 뿌려진 것은 남는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뿌려진 것은 남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강제적인 것은 그 사람의 의지로부터가 아닌 제3자의 의지로부터 뿌려졌다고 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역시, 자유로부터의 예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 강제성이 동원된 예배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자유로부터의 예배는 사랑으로부터의 예배이나 강제성을 띤 예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선을 행하는 자유와 악을 행하는 자유가 바깥 모양새로는 엇비슷한 듯 나타날지 모르나 이 둘은 완전 다르다. 마치 천국이 지옥과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유는 천국으로부터인 바, 천국의 자유라 불리운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유는 지옥으로부터인 바, 지옥의 자유라 불리운다. 따라서 인간이 이쪽 편에 있는 만큼에서 그는 저쪽 편에 있지 않는 셈이다. 그 이유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마태 6:24) 위 사항을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악을 뜻하고 거짓을 생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지옥의 자유에 있는 이들에 의해서는 이것이 노예 신세요 강제 당함이라고 믿어진다. 한편 천국의 자유에 있는 이들은 악을 뜻하고 거짓을 생각하게 하면 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하도록

자유

밀어붙이면 그들은 고문당하는 느낌을 받고야 만다.

자유로부터 행동함이 인간에게는 자아로부터인 듯 나타나는 바, 천국의 자유는 인간의 천국적 자아(Self, Proprium), 지옥의 자유는 인간의 지옥적 자아라 불린다. 인간은 지옥적 자아로부터 태어나는데, 이 자아는 악이다. 그러나 개혁됨을 수단으로 천국적 자아가 인간에게 소개되고, 이 자아는 선이다.

이상으로부터 미루어 선택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도 알고 있을런지 모른다. 이것은 선택함으로, 즉 의지로 선을 행함을 뜻한다.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이들은 이 자유 안에 있다. 주님에 의해 인도되는 이들은 선과 진리를 위하여 선과 진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듣고, 볼 때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으로부터 자신의 자유의 품질을 알런지 모른다. 그 이유가 모든 즐거움은 사랑에 속하기 때문이다.





11

공적

(Merit)

공적을 확보할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사랑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사랑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공적을 획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보상받았지 역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자기들의 기쁨을 보상받음에서 발견하고 선 안에서 발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적이지 않고 자연적이다.

참 선인 선을 행함은 선을 사랑함으로부터 흘러야 한다. 고로 이는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은 공적 같은 말은 들으려조차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그들은 행함을 사랑함 안에 있고, 행함 안에서 만족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꾸로 만일 그들이 공적을 생각하거나 자기들이 행한 어떤 것이 자기를 위하여서 인듯 여겨지면 대단한 슬픔에 빠지고야 만다. 이것은 친구 관계를 위하

공적

여 친구에게 선을 행하는 경우나, 또는 형제 관계를 위해 형제에게, 아내나 아이를 위하여 아내와 아이에게, 나라를 위하여 나라에 선을 실시하는 경우나 비슷할 것이다. 이들은 사랑으로부터 선을 행하고 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이들은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서이다.

보상을 기대하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으로부터이다. 그 이유가 그들의 일차적 관심은 자신들, 자신에게 선인 것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웃에 대한 선, 동료에 대한 선, 사회나 나라, 교회에 대한 선은 그들에게는 자기들 목적을 위한 수단들일 뿐이다. 이런 근거에서 공적의 선 안에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선이 잠복하고 있다. 이 후자의 선은 인간으로부터 이고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있는 모든 선은 선이 아니다. 자아와 세상 사랑이 이 안에 잠복하는 정도에 비례해 그것은 악이다.

순수한 선행, 순수한 신앙은 공적이라는 단어조차 모른다. 그 이유가 선행으로부터의 즐거움은 선 자체이고, 신앙으로부터의 즐거움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선행과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은 공적에 대한 생각이 결여된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선행과 신앙 안에 있지 않은

공적

이들은 그렇지 않다.

선은 보상을 기대하여 행해져서는 안됨을 주님 자신께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만일 네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무슨 감사함이 네게 오겠느냐? 죄인 역시 이런 것은 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빌려주되, 다시 아무 것도 희망하지마라. 너희 보상은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최고 높으신 분의 아들일 것이다.” (누가 6:32-35) 자신으로부터의 선인 선을 행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사람은 천국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요한3:27) 그리고 예수께서 말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요한15:4-8)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이고, 인간으로부터 서는 아니기에,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오는 선은 선이 아닌 바, 공적은 어떤 인간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 만에 속한다는 귀결이 뒤따른다. 주님의 공적은 그분 자신의 힘에서 인류를 구하셨다는 데에, 그리고 그분은 그분으로부터 선을 행하

공적

는 이들을 구원하신다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말씀에서, 주님의 공적과 정의 탓에 자신은 구원되고 있다는 사람은 정당한 사람이고, 구원받는 것이 자아에서 비롯된 공적과 정의 탓이라고 하는 자는 부정한 사람이라 부르고 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함을 사랑함 안에 거주하는 참 즐거움은 영원히 남는 보상이다. 그 이유가 천국과 영원한 행복은 주님에 의해 이 선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선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 선을 실행한 사람들이 천국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 것은 보상을 목적으로 중시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에서 공적을 내세운다는 것도 뜻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선을 실시하는 이들은 위와 같이 생각하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기는 하되, 선을 위해 선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목적의 자리에 보상을 놓고 중시하고 자기들 일 안에 공적을 놓는다.





12

회개와 죄의 용서

(Repentance, and the Remission of Sins)

구원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를 실행해야 한다.

자신의 죄들을 고백함이란 악을 알고 있음, 자기 자아 안에 있는 악들을 봄, 그 악을 인정함, 자아가 죄있음을 선포함, 그래서 자아를 규탄함을 뜻한다. 이것이 하느님 앞에서 행해질 때, 죄들을 고백함이다.

남들이 통상 하는 방식으로 자기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모든 악들에서 자신에게 죄있다고 선포하는 사람, 그런데 아직 자신을 검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 즉 자기 악들을 보았고 그래서 고백까지 했음에도 회개의 고백이 없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자기 악들을 숙지시키지 않았기에, 그는 이전에 살았던 그대로 사후에도 살아간다.

선행과 신앙의 생활을 이끄는 사람은 매일 회개를 실시한다. 그는 자신과 더불어 있는 악들이 무엇인지 꼼꼼이 따져본

회개, 그리고 죄들의 용서

다. 그는 그 악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서려 애쓴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자신 스스로일 경우 꾸준히 타락할 수 밖에 없고, 그러나 주님에 의해 그는 꾸준히 들어올려지고 선으로 인도되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모습은 선 안에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악 안에 있는 이들은 꾸준히 타락한다. 그리고 이들도 주님에 의해 꾸준히 들어올려진다. 그럼에도 그들은 엉뚱한데로 인도되어 아주 비통한 악들에 빠져들고 만다.

회개를 실행할 의도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들, 그의 의지 속의 의도들을 조사해야 한다. 만일 그가 자유하다면, 즉 자신의 명성이나 이득의 손실 위험이 없을 경우, 거기서 그는 자기가 행할 것을 검사해야 한다. 인간의 악들은 그 사람의 생각들과 의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와 더불어 행하는 악들은 모두 거기로부터 이다. 자기의 생각들과 의지속의 악들을 조사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실행할 수 없다. 그는 전에 했던 것과 꼭 같게 사후에도 생각하고 뜻한다. 악을 뜻함은 악을 행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자아검증에 의해 의미되어진다.

생활로가 아닌 입술로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죄들은 입술로 고백했다고 청산되지 않고, 생활로 회개할 때 청산이 가능해진다. 참으로 죄들은 주님에 의해 꾸준히 용서되고

회개, 그리고 죄들의 용서

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자비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들은 인간에게 너무나 착 달라붙어 있는데, 인간은 그것들이 청산되었다고 생각할런지 모른다. 악들은 진정한 신앙의 가르침들에 의한 삶 이 외의 수단으로는 당사자로부터 제거 되지 않는다. 인간이 진정한 가르침에 의해 사는 만큼에서 그의 죄는 옮겨진다. 그리고 그것들이 옮겨진 만큼, 그것들은 삭제된다.

죄들이 청산되었을 때, 죄들은 닦아내지거나 물로 오물을 씻듯 되어진다고 생각했다. 어찌됐든 죄들은 닦아지는게 아니라 옮겨진다. 즉 그가 주님께 의해 선 안에서 보존될 때, 그것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억제되고 있다는 말이다. 인간이 선 안에 보존될 때, 죄들은 그에게 마치 죄없는듯, 그리하여 씻어내 없는듯 나타난다. 인간은 개혁된 만큼에서 선 안에 보존되어질 수 있다. 어떻게 인간이 개혁되는가는 다음 장인 거듭남 편에서 보여질 것이다. 죄들이 이 외 다른 방식에서 청산된다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당한 것이나 다름 없다.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표시들, 즉 옮겨졌다는 표시들은 다음과 같다.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을 예배함에서 즐거움이 지각된다.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섬김 안에 있다. 그리고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함 안에 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회개, 그리고 죄들의 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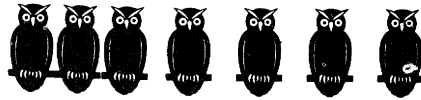
진리를 말함 안에 있다. 선행과 신앙에 속하는 어떤 것을 수단으로 공적을 거두어 들이는 짓은 마냥 싫어진다. 악들이 금하여지고 예를 들면, 적개심, 미워함, 복수, 간음들, 그리고 그것들의 의도들에 함께 악들로부터의 생각들을 아주 싫어한다. 위와 반대로 용서되지 않았다는 표시, 즉 옮겨지지 아니했다는 표시는 다음과 같다.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이 예배되지 않는다.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 선과 진리를 위하여 선이 행해지지 않는다. 진리가 말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아와 세상을 위하여서만 말해지고 행동한다. 자신의 행동에 의해 공적을 모아들이는 것에 느낌이 좋다. 적개심, 미움, 복수, 간음질 같은 악들이 지각될 때 불유쾌한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악들로부터 사람들은 제한 없는 자유로 그것들을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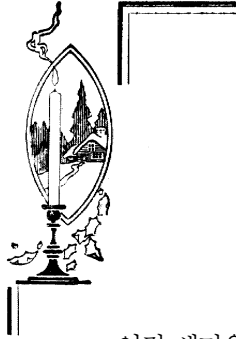
자유 상태에서 실시된 회개는 쓸모가 있다. 그러나 강박충동의 상태에서 실시되어진 회개는 쓸모가 없다. 강박충동의 상태는 아픔의 상태, 불행으로 마음이 우울한 상태, 죽음이 다가오는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 이해성의 사용을 박탈당해 두려운 모든 상태들이다. 이런 강박충동의 상태 아래 있게 되면 악인이라도 회개를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벗어났다 싶으면 악한 인간은 이전에 즐기던 악한 생활로 되돌아 간다. 그러나 선한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회개, 그리고 죄들의 용서

인간이 자신을 검토한 후에, 자기 죄들을 인정했고, 그가 회개를 실시했다면, 그는 선 안에 있으려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그것도 생애 마지막까지 말이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악한 이전 생활로 거슬러 되돌아가서 이전 삶을 끌어안는다면, 그는 모독의 신하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악이 선과 결합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그의 후자의 상태는 전자의 상태보다 더 나빠지게 된다. 이를 두고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깨끗지 않은 영이 사람으로부터 나갔을 때, 그는 마른 장소를 지나고, 쉼 곳을 찾고, 그것을 발견치 못한다. 그러면 그는 말한다, 나는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 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왔을 때, 그는 그 집이 텅비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면 그는 가서 자신과 함께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영들을 데리고 와서 안에 들어가 거기 거주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지막 상태는 처음 상태보다 더 나빠지게 된다.” (마태 12:43-45) 모독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 편에서 다룰 것이다.

회개, 그리고 죄들의 용서





13

거듭남

(Regeneration)

영적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 즉 주님에 의해 새로
이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 갈 수 없다. 주님
께서 이를 가르치신다. “참으로, 참으로 나는 네게 말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그는 하느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요한 3:3)

인간은 자기 부모로부터 영적 삶이 아닌 자연적 삶을 살도록
태어나진다. 영적 삶은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을 사랑함에,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함에 있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치신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데 있다. 자연적 삶은
자아와 세상을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함과 하느님을 사랑함
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데 있다.

부모로부터 인간 존재 모두는 자아와 세상을 사랑함이라는
악 안에서 태어나진다. 습관을 수단으로 자연적인 것이 되어
간 모든 악은 후손에게 전해진다. 즉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거듭남

터, 그리하여 뒤로뒤로 거슬러 가면 옛 선조로부터 계속적으로 물려 내려온 악들이다. 이러하기에 아래로 건네 준 악들은 규모상 심히 커서 인간 자신의 생명 전체는 악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계속적인 악의 갈래들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신앙과 선행의 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간은 유전을 수단으로 이어받은 악을 향해 계속적으로 기울고, 그것 안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이 근원으로부터 그는 악 안에서 자신을 확증한다. 또한 자신으로부터 악을 더 추가한다. 이런 악들은 영적 생명에 반대되어 있고 파괴적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지 않으면, 즉 영적 생명을 받지 않으면, 그러므로 그가 새로이 임신되고, 새로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새로이 교육되지 않으면, 즉 그가 새로이 창조되지 않으면, 그는 지옥에 사는 무리에 끼여 있게 된다. 그 이유가 그는 자아와 세상에 속하는 것, 어찌면 지옥에 있는 이들이 하는 것 외는 어떤 것도 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새로운 삶에 속하는 것들, 즉 영적 삶에 속하는 것들에 정통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거듭나질 수 없다. 새로운 삶, 즉 영적 삶에 속하는 것들은 믿어져야 하는 진리들, 행해져야 하는 선들이다. 전자는 신앙에 속하고, 후자는 선행에 속한

거듭남

다. 이런 것들은 누구도 자신으로부터서는 알 수 없다. 그 이유가 인간은 그의 감각들에 부딪치는 것들 만을 납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로부터 그는 자연적 발광체라 불리는 빛을 자신을 위해 포획한다. 이를 수단으로 그는 세상과 자신에 속하는 것 만을 볼 뿐, 천국과 하느님에 속하는 것까지 보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 후자의 것을 계시(밝히 알게 해주심)로부터 배워야만 한다. 예를 들면,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이 신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분은 천국 안에서와 지상 위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 신앙과 선행의 전체, 고로 진리와 선 모두는 그분으로부터 이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만일 자기가 선을 행하였으면 천국에서, 악을 행하였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등등에 관해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위의 사항 그리고 신앙에 속하는 이 외 더 많은 것들이 거듭나야져갈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고 알아야 한다. 그 이유가 이런 것들에 정통해진 사람이어야 그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뜻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새로운 생명, 새 삶을 가질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그가 주님이 인류의 구세주이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일 경우, 그는 그분에 대한 어떤 신앙도 가질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며, 그분을 위하여 선을 실시할 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거듭남

터 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의 구원이 그분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생각을 뜻해 본다는 것은 더더욱 가능치 않다. 고로 그는 주님으로부터 살 수 없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한 그는 천국의 삶도, 천국을 받기 위해 자신을 정립함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가능치 않다. 아마 이 외 더 많은 사항의 전체적 윤곽도 이와 비슷하다.

모든 사람은 내적, 외적 인간을 가지고 있다: 내적 인간은 소위 영적 인간이라 불리고, 외적 인간은 소위 자연적 인간이라 불린다. 인간이 거듭나지기 위해서는 위 두 인간 각각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그의 외적 인간이 통치하고, 그의 내적 인간은 외적 인간을 추종할 뿐이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경우, 내적 인간, 즉 영적 인간이 통치하고, 그의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을 추종한다. 이로부터 분명해지는 바, 인간의 삶의 질서는 출생 때부터 거꾸로 있다는 점이다. 즉 통치해주어야 하는 것이 추종하는 위치에, 추종만 해야 하는 것이 통치하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인간이 구원되려면 이 질서를 거꾸로 해야 한다. 이 거꾸로의 삶은 주님에 의해 거듭남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가능치 않다.

거듭남

내적 인간이 통치하고 외적 인간은 이를 따르기만 하는 것,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예증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인간이 자기의 선 전체를 육욕적인 것에, 이권에, 자만에 놓아두고, 그리고 그가 미워함, 복수함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게다가 이런 자기의 모습을 이성으로 합리화하여 내면적으로 확증까지 한다면, 분명 이것은 그의 외적 인간이 통치하고 그의 내적 인간은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그의 선과 즐거움을 선량하게, 진솔하게, 정의를 생각하고 뜻함에서 발견한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로 바깥쪽에서도 행동하고 있다면, 분명 그는 그의 내적 인간이 통치하고 외적 인간은 굴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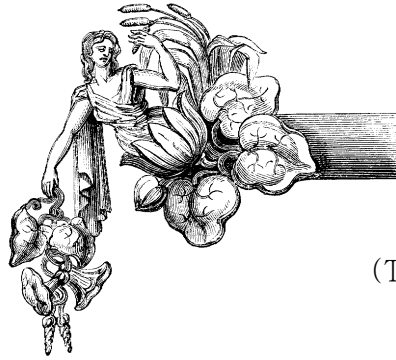
내적 인간이 주님에 의해 먼저 거듭나지고, 그 후 외적 인간도 거듭난다, 이 후자는 전자에 의해 거듭난다. 그 이유가 신앙과 선행에 속하는 것들을 생각함으로 내적 인간이 거듭나고, 이에 따라 생활함으로 외적 인간이 거듭나기 때문이다. 이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 갈 수 없다.” (요한 3:5) 물은 영적 의미에서 신앙으로부터의 진리를, 성령은 이 진리에 따른 생활을 의미한다.

거듭나고 있는 사람의 내적 인간은 천국 안에 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천사들과 더불어 천사로 있고, 사후 그는 이

거듭남

천사들 무리에 온다. 그리하여 그는 천국에서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보살피며, 진리를 이해하며, 선을 즐기며, 복됨을 지각한다.





14

시험

(Temptation)

거듭나야가고 있는 이들만이 영적 시험들을 겪는다. 그 이유는 영적 시험은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악령에 의해 촉발된 마음의 고통이다. 악령들이 거듭나는 이들에게 있는 악들을 흥분시킬 때, 거기서 심통의 느낌이 일어난다. 이 심통은 시험에 속한다. 이 근원을 모르는 사람은 심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악령과 선한 영들 다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있다. 악령들은 그 사람의 악들 안에 있고, 선한 영들은 그의 선들 안에 있다. 악령이 가까이 올 때, 이 영들은 그의 악들을 산출한다. 그리고 반대로 선한 영들은 그의 선들을 산출한다. 이로부터 충돌과 전투가 발생하고, 이로부터 인간은 내면의 고통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시험에 의해 의미된다. 이로부터 분명한 바, 시험은 지옥에 의해 야기되고 천국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교회의

시험

신앙과도 일치한다.

내면의 고통의 느낌은 선들과 진리들 안에 있지 않는 이들과도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자연적 고통이지 영적 고통의 범주는 아니다. 이 두 고통은 이렇게 구별된다. 즉 자연적 고통은 그 대상이 세상적인 것 때문이나 영적 고통은 천국적인 것 때문이다.

선이 악을 지배할 것인지, 악이 선을 지배할 것인지가 시험들 안에서 경쟁한다. 통치를 바라는 악은 자연적 인간 또는 외적 인간 안에 있고, 선의 경우, 이는 영적 인간, 또는 내적 인간 안에 있다. 만일 악이 우세하다면, 자연적 인간이 통치하고, 선이 우세하다면, 영적 인간이 통치한다.

이 전투들은 말씀으로부터 있는 신앙 속의 진리에 의해 야기되어진다. 이 진리들로부터 인간은 악과 거짓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가 말씀 외 어느 다른 진리로부터 싸운다면 그는 시험을 정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주님은 어느 다른 것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전투는 신앙 속의 진리들을 수단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소유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들을 수단으로 그가 어떤 영적 생명을 획득할 때까지 영적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년이 되기 전, 인간은 자기 안에 전투 장소를 가지지 않는다.

시험

만일 인간이 굴복하면, 시험 후 그의 상태는 이전 보다 더 악화된다. 그 이유는 악이 선을 압도하는 힘을, 거짓은 진리를 압도하는 힘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신앙이 희귀한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선행이 신앙 안에 없기 때문 -그 이유는 교회가 그것의 끝에 와 있기 때문 -그러므로 어떤 영적 시험들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된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기에 이 시험들이 무엇인지, 시험의 사용은 무엇인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시험의 용도는 선이 악을 지배하는 힘을, 진리가 거짓을 지배하는 힘을 획득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시험은 진리들을 확실히 함에, 그리고 진리가 선과 결합함에, 동시에 악들과 거짓들을 흐트러 버림에 사용된다. 영적 시험은 내적 영적 인간을 열리게 하고 영적 인간에 자연적 인간을 복종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동시에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을 깨트려버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욕망들을 억제하는데 사용된다. 이런 것들이 다 꺼내어진 후 인간은 진리와 선, 거짓과 악이 무엇인지에 관한 계발과 지각을 획득한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총명과 지혜의 경우이다. 이것은 이 후 날마다 증가한다.

주님 만이 시험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 싸워주신다. 그리고 주님 만이 그를 위해 싸워주시고, 그를 위해 정복해주신다는

시험

것을 그가 믿지 않으면, 그는 외적 시험 만을 수행한다. 그에
게 영적 시험은 어떤 유익함도 주지 못한다.





(Baptism)

세례는 어떤 인물이 교회 속에 있다는 표시를 위해, 그리고 그가 거듭나지게 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어졌다. 그 이유가 세례의 씻음은 거듭남인 영적 씻음 외에 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거듭남은 신앙 속의 진리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진리에 일치된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의해 결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세례는 어떤 인물이 교회 속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낳는다. 그 이유가 거듭나게 하는 이가 주님이심이 교회에서 인정되어지기 때문, 그리고 교회 안에 신앙 속의 진리들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 이 진리들을 통하여 거듭남은 결과되기 때문이다.

세례

이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 3:5) ; 물은 영적 의미에서 말씀으로부터 있는 신앙 속의 진리를 뜻하고, 영은 이 진리에 따른 생활을 뜻한다. 그리고 태어남은 신앙과 생활을 수단으로 거듭나짐이다.

거듭나고 있는 모든 이 각자는 시험들, 즉 악들과 거짓들에 맞선 영적 전투를 실시하는 바, 세례의 물 역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세례는 위 같은 것들에 대한 표시와 기념물로 존재하기에 삶을 살아보지 않은 유아도 세례를 받게 된다. 이렇지 않다면 성인으로서 세례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이들은 세례 의식 자체가 신앙이나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면서, 더 나아가 신앙을 획득하고 거듭나면, 구원될 것임을 증거해야 한다.

하여 이 말씀에 의해 의미된 것을 알게 된다. “믿고 세례받았던 사람은 구원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될 것이다.” (마가16:16) 믿는 사람이란 주님을 인정한 사람,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신성한 진리들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런 진리들을 통하여 주님께 의해 거듭나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16

성찬

(Holy Supper)

성찬은 주님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하여 교회는 천국, 고로 주님과 결합
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배에서 최고의 거룩한
행동이다.

그러나 성찬을 통하여 결합이 어떻게 결과하는지는 말씀의
내적 또는 영적 의미에 관한 어떤 것을 모르는 이들에 의해서
는 납득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이들은 글자의 외적 의미
너머에 있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의 내적,
영적인 의미로부터, 몸과 피의 의미, 그리고 빵과 포도주의
의미, 그리고 먹는 것의 의미가 알려진다.

영적 의미에서 주님의 몸, 또는 살, 마찬가지로 빵은 사랑으로
부터의 선을 표시한다. 그리고 주님의 피,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도주는 신앙으로부터의 선을 표시한다. 그리고 먹는 것은
자기 것이 됨, 그리고 결합을 표시한다. 사람과 더불어 성찬

성찬

의식에 참가중인 천사들은 위의 의미 외에 달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거룩함과 신앙의 거룩함이 천사들로부터, 고로 천국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그 사람 안으로 흐른다. 이렇게 하여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상으로부터 분명한 바, 인간이 주님의 몸인 빵을 먹는 의식에 참가할 때, 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의 선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어진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에 참가할 때, 그는 그분에 대한 신앙으로써의 선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된다. 그러나 마음 안에 꼭 새겨들 일은 성찬 예식을 통한 주님과 결합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의 선과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써의 선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있는 이들에게만 거행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과 더불어 성찬을 통한 결합이 있다. 그 외 사람들 역시 성찬에 참가하겠지만 결합은 없다.

더 나아가 성찬은 이스라엘 교회 처방에서 제정된 신성한 예배의 전체를 포함하고 아우르고 있다. 그 이유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 이 안에 이 교회 예배의 제일가는 사항이 있는데, 한 마디 표현으로 “빵”이다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찬은 위 예배의 요약이다.



17

부활

(Resurrection)

인간은 그의 내적 인간에 관련해서
는 그가 죽을 수 없도록 창조되어져 있
다. 그 이유가 그는 하느님을 믿을 수 있고, 또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 그러므로 그는 신앙과 사랑을 수단으로
하느님과 결합할 수 있다. 하느님과 결합함은 영원한 삶을
뜻한다.

내적 인간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있다. 그의 외적
인간은 내적 인간을 수단으로 신앙과 사랑에 속하는 것들을
행한다. 내적 부분은 소위 영이라 불리우고, 외적 부분은
몸이라 불리운다. 몸이라 불리는 외적 부분은 자연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이것은 인간이 죽을 때 벗어 던진다.
그러나 영이라 불리는 내적 부분은 영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이것은 죽지 않는다. 만일 당사자가 세상에서 선한
쪽에 있어 왔다면 그의 내적 부분은 선한 영과 천사이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동안 악한 쪽에 있어 왔다면 그것은
악령이다.

부활

몸이 죽은 후, 인간의 영은 영계에서 인간 형체로, 마치 자연계에서 있던 그대로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는 자연계에서 했던 그대로 보고,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그리고 그는 자연계에 있었을 때 같이 생각하는 능력, 뜻하는 능력, 행동하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한마디로, 그는 세상에서 입고 있었던 몸 전체를 입고 있지 않다는 것 외에는 각각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사람이다. 그는 죽을 때 세상을 위한 몸을 남기고 다시는 그것을 되찾지 못한다.

삶의 이런 연속이 부활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사람들은 죽게 되면,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이 멸망하는 때인 마지막 심판 이전에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감각적 인간이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것이 다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인간 전부는 끝장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후 인간의 삶은 그의 사랑의 삶과 그의 신앙의 삶이다. 그러므로 그가 자연계에서 지니고 살아왔었던 그의 사랑과 신앙의 삶이 그대로 그를 기다리고 영원까지 이어진다. 자신만을, 세상의 것만을 위해 자연계의 삶을 소비한 사람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사랑했고 자신인 듯 이웃을 살핀 이들은 천국의 삶을 이어받는다. 이 후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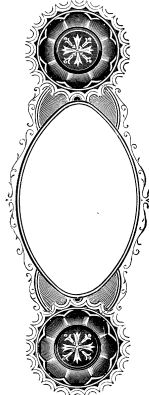
부활

신앙을 지닌 이들이다. 전자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다. 천국의 삶은 소위 영원한 삶이라 불린다. 그리고 지옥의 삶은 영적인 죽음이라 부른다.

사후에도 인간은 산다는 것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느님이시다는 것” (마태 22:31), “라사로는 사후 천국으로 운반 되었으나 부자는 지옥에 던져졌다는 것” (누가 16:22,23),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 안에 있다는 것” (마태 7:11, 12:31,32, 누가 20:37,38), 예수께서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신 것 (누가 23:43), 등등이다.

부활





18

천국과 지옥

(Heaven and Hell)

인간 영의 생명을 구성하는 두 가지 것이 있다. 사랑과 신앙이다. 사랑은 그의 의지의 생명을 구성하고, 신앙은 그의 이해성의 생명을 구성한다. 선을 사랑함, 그리고 이 사랑으로부터 진리의 신앙이 천국의 생명을 구성한다. 그리고 악을 사랑함, 이 사랑으로부터 거짓의 신앙은 지옥의 생명을 구성한다.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천국의 구성 요소이다. 그리고 신앙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단지 위 두 사랑들로부터 존재하는 한 그러하다. 이 사랑들, 그리고 이 사랑으로부터의 신앙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인 바, 주님이 천국을 만들고 계심도 분명할 것이다.

각 사람과 더불어 천국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신앙을 받음에 따라 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받는 이들이 사후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과 지옥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받는 이들은 자신들 안에 천국을 가지는 이들이다. 그 이유가 천국은 인간 안에 있기 때문, 주님께 서도 이를 가르치시고 있다. “하느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그 이유는 하느님의 왕국은 네 안에 있기 때문이다.” (누가 17:21)

인간과 더불어 천국은 인간의 내적 부분, 고로 사랑과 신앙으로부터 그의 의지력과 사고력에 주재한다. 그리고 그의 외적 부분은 사랑과 신앙으로부터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다. 천국은 내적 부분과 떨어진 외적 부분에는 있지 않다. 그 이유가 위선자의 경우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후 저 세상으로 올 때는 천국이 그 사람과 더불어 있는지 여부는 즉각 판명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은 누구도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세상에서는 외적 부분만 나타날 뿐, 내적 부분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쪽 삶에서 내적 부분은 분명히 드러나진다. 그 이유가 거기서는 그가 영으로 있기 때문이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함 안에,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은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이것을 천국의 기쁨이라고도 부른다. 이 기쁨은 이 사랑 안에, 이 신앙 안에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천국을 지닌 이들은 사후

천국과 지옥

이 기쁨을 향유한다. 한편 이것은 그의 내적 부분 안에 감추여 있다. 천국들 안에서는 모든 선들을 공유함도 있다. 모든 사람 속의 평화, 총명, 지혜, 행복은 거기서 각자에게 소통되어진다. 허나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신앙을 받는 정도에 따라 가능하다. 이로부터 분명한 바, 천국에 있는 평화나 총명, 지혜 그리고 행복은 그 얼마나 큰지!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인간과 더불어 천국의 구성 요소이듯,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은 그것들이 인간 안에서 우세해질 경우, 지옥의 생명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 이유가 이 후자의 두 사랑은 전자의 두 사랑에 직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지배권을 쥐게 한 사람은 천국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고 지옥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가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가 믿는 것은 무엇이든 천국이나 지옥이나 어느 한 쪽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득세하고 있는 이들은 천국과 천국적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외에 어느 사랑 안에서 행복함이 가능할지 조차도 가늠하지 못하는 듯 여겨진다. 어쨌든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이 목적하는 것에서 제거되는 정도에 비례해 천국의 행복은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 이 옮겨짐에 뒤 따르

천국과 지옥

는 행복은 실로 너무나 커서 인간의 모든 납득력을 초월한다.

인간의 생명은 사후에는 바뀔 수 없다. 이 생명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대로 그곳에서도 남아 있다. 그 이유가 인간의 영은 자기 사랑들의 품질에 따라 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옥의 사랑은 결단코 천국의 사랑으로 변형시켜 질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둘은 직반대되기 때문에서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에서도 의미되고 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네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해도 갈 수 없다.” (누가 17:21) 이로부터 확실한 바, 지옥에 가는 이들은 거기서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는 것, 천국에 가는 이들은 거기서 영원히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다.



19

교회

(Church)

인간과 더불어 천국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또한 교회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그 이유가 사랑과 신앙이 천국을 구성하듯, 마찬가지로 사랑과 신앙은 교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천국에 관해 이미 상술했었던 것으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졌을 것이다.

교회는 주님이 인정되어진 곳이라고, 그리고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해진다. 그 이유가 교회의 필수 요소는 주님을 사랑함과 그분을 믿는 것이고, 이 둘은 모두 그분으로부터이다. 그리고 말씀은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신앙을 받기 위하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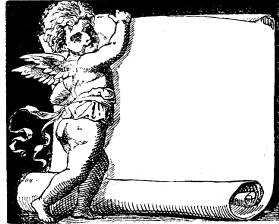
교회가 존재한다란 거기에 말씀으로부터의 교리가 있다는 말과 같다. 그 이유는 교리 없이 말씀은 이해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간과 더불어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교리 만이 아니라 교리에 따른 생활도 필수이다. 이로부터

교회

분명한 바, 믿음 만으로 교회가 구성되는게 아니라 선행인 믿음으로부터의 생활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순수한 교리는 선행에 관한 교리, 동시에 신앙에 관한 교리이다. 즉 신앙의 교리가 선행의 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선행의 교리와 동시에 신앙의 교리는 생명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의 교리가 선행의 교리로부터 떨어진 것은 생명의 교리가 아니다.

교회 밖에 있다 해도 한분 하느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향한 선행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교회 속에 있는 이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느님을 믿으며 선한 생활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지옥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분명한 바, 주님의 교회는 세상 두루 어느 곳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특수한 측면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지라도, 일반적 측면에서의 경우 거기서 주님은 인정되고, 거기에도 말씀은 존재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이는 구원되나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지옥에 간다.



20

신성한 성경, 또는 말씀

(The Sacred Scripture,
or Word)

신성으로부터의 참 계시 없이 인간은 영원한 삶에 관한 어떤 것, 또는 하느님에 관하여 조차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을 사랑함과 그분에 대한 신앙에 관한 것은 더욱 모른다. 그 이유가 인간은 지독하게 무지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이해성을 형성되게 하는 모든 것을 세상의 물체로부터 배워야 한다. 또한 유전적으로 그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악 안에서 태어나진다.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즐거움은 계속적으로 우세하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신성에 직반대되어 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암시한다. 이것이 인간은 영원한 삶에 관해서 아는 게 없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참 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참 계시로부터 인간은 여러 지식을 가질 것이다.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악들이 사람들을 설득하여 영원한 삶에 속하는 것들에 관하여 무지해 있게 한다는 것은 교회

신성한 성경, 또는 말씀

내에 있는 이들의 경우로부터 오히려 분명해진다. 그 이유가, 비록 그들이 계시로부터 하느님은 계신다...천국과 지옥이 있다...영원한 삶이 있다...이 삶은 사랑과 신앙의 선을 통하여 획득해야만 한다...등등을 알아채고 있는 듯 해도, 그들이 학식이 있든 없든 별 상관 없이 위 사항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는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예를 가정해 보건대 참 계시가 전혀 없다면 그 부정함의 심각성은 어떠할까?

인간은 사후 살기에, 그리고 영원히 살기에, 이 삶은 그의 사랑과 신앙에 따라 그를 기다리고 있기에, 수반되는 것은,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신성은 이런 삶으로 인도해줄 것들을 계시하였고 이것이 인간의 구원에 이바지하고 있다. 신성이 계시해온 것이 우리와 더불어 있는 말씀이다.

말씀이 신성으로부터의 계시인 바, 말씀의 각각의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신성하다; 그 이유가 신성으로부터 있는 것은 다른 방도로는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성으로부터 있는 것은 천국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내려온다; 그러므로 천국들 안에서는 거기 있는 천사들의 지혜가 편의를 제공하고, 지상의 경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납득력이 편의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말씀 안에는 천사들을 위해서는 영적인 것인 내적 의미가 있고, 지상의 인간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신성한 성경, 또는 말씀

것인 외적 의미가 있다. 고로 인간이 천국과 결합하려면 말씀을 통하여야만 가능하다.

계발되어온 이들이 아니면 말씀의 순수한 의미를 이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 안에서 그분에 대한 신앙을 지닌 이들은 주님에 의해 계발되어진다. 그 이유가 이들의 내면들은 주님에 의해 천국의 빛 안으로 들려지기 때문이다.

글자로 있는 말씀은 말씀으로부터 있는 교리를 수단으로 해서만 납득될 수 있다. 단순한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말씀의 글자적 의미는 그들의 이해력이 편의를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말씀으로부터의 교리는 글자 의미를 위해 등불 역할을 담당한다,

신성한 성경, 또는 말씀



섭리



21

섭리

(Providence)

천국에서, 그리고 지상에서의 주님의 통치는 섭리라 불리워진다. 사랑 속에 있는 모든 선, 신앙 속에 있는 모든 진리, 이로부터 구원이 있고, 이는 그분으로부터 이고 사람으로부터서는 절대 아닌 바, 명백한 사상은 주님의 신성한 섭리는 인류의 구원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 그리고 각각의 것 안에 있다는 점이다. 이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다.” (요한 14:6) 그리고 다시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 15:4,5)

주님의 신성한 섭리는 인간 삶의 지극히 작은 세세한 것들에 까지 이른다. 그 이유가 생명의 유일한 한 개의 원천이 주님이시기 때문, 이 분으로부터 우리는 살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섭리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신성한 섭리에 관하여 생각하는 이들은 섭리는 단지 보편적인 사항에 국한되고 세세한 것들은 인간과 더불어 있을 뿐이라고 결말 짓는다. 이들의 헛점은 자기들이 천국의 신비함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가 그들은 자기들의 추론을 자아와 세상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의 쾌락으로부터서만 도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선한 자 보다는 사악한 자가 영예로운 지위에, 그리고 재물도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을 볼 때, 더우기, 그들의 구상을 밀어붙여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자기들의 심중에 말하는 바, 신성한 섭리가 모든 것, 그리고 각각에 존재한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은 신성한 섭리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지상의 것인 인간의 생명과 더불어 종지부를 찍는 것들은 중시하지 않고 영원히 지탱할 것들, 끝이 없는 것들에 깊은 관심을 둔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끝이 없는 것이 존재를 가진다는 것, 그러나 끝이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간과하고 있다. 혹은 그들로 하여금 수 천 년과 영원을 비교해 생각하게 해보자. 아마 그들은 그 둘이 같지 않다는 것을 지각할 것이다. 그러니 한 백년 남짓한 세상에서의 인생 기간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저세상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

정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재물과 등급은 비록 인간이 그것들로부터 있는 쾌락으로부터 그것들이 신성한

섭리

축복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실상 그것은 진짜 신성한 축복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런지 모른다. 그 이유는 그것들은 소멸해 버리고, 뿐아니라 많은 것들을 부추켜 천국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삶, 그것의 더 없는 행복이야말로 신성으로부터 있는 진정한 복들이다. 이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네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 천국들 안에 네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준비하라. 거기는 도둑의 접근이 없고, 썩는 일도 없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심정 역시 거기에 있다.” (누가 12:33,34)

사악한 자가 자기들의 계획을 추진함에서 성공이라는 왕관을 쓰는 이유는 이러하다. 그들의 계획한 바가 신성한 질서에 일치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성으로부터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자유함으로부터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그의 이성에 따라 자유로부터 행동하도록 인간을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신성한 질서에 일치되는 쪽에서 창안된 것들은 사악한 자의 창안이다 해도 성공되어야 그나마 사악한 자라도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적합해 질 기회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영원한 생명은 당사자가 자유할 때, 그리고 그의 이성이 계발될 때 인간 안으로 조금씩이라도 스며들기 때문이다. 강제성이 동원된 것은 그 사람의 것으로 남아 있지 않는 바, 어느 누구도 선 쪽으로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그

섭리

이유는 강요당할 경우 그의 것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의 것이 되는 것은 그의 이성에 따라 자유함에서 행동된 것들이다; 그리고 자유함으로부터 행동된 것은 그의 의지로부터, 즉 그의 사랑으로부터 행해진 것이다. 그의 의지, 즉 그의 사랑은 인간 자신이다. 만일 인간이 뜻하지 않은 것을 강제로 하게 해도, 그는 꾸준히 그의 의지가 뜻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대체로 모든 이는 금해진 것을 얻으려 애쓰는 경향이 짙다, 게다가 감추여 놓인 원인으로부터 더욱 그러하게 애쓴다. 그 이유가 모든 이는 자유를 쟁취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명백한 바, 인간이 자유 안에 보존되지 않으면 선은 그를 위해 준비되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로부터 생각하고 뜻하라고 내버려두는 것, 법들이 그것을 금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함에서 생각하고 뜻하게, 설령 악을 행할지라도 유보하시는 것을 허용하심(permission)이라 부른다.

세상의 복된 것 쪽으로 노련한 계획에 의해 이끌어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마치 당사자의 신중함의 결과인양 나타난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허용함에 의해 신성한 섭리는 그를 거들어, 계속적으로 악으로부터 그가 멀리 떨어지도록 이끌고 있다. 결국 천국의 복된 것들 쪽으로 인도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신중함의 결과가 아님이 알려지게 되고 지각되

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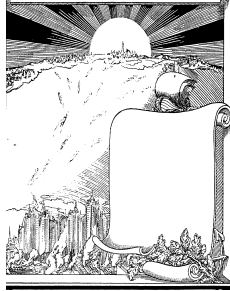
어진다. 그 이유가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이고, 그분의 신성한 섭리에 의해 야기되고, 배열되고, 계속적으로 선 쪽으로 인간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경우를 인간은 자연의 빛으로부터는 납득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이 빛으로부터서는 신성한 질서의 법칙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섭리와 예견이 있다는 것은 마음 안에 출생되도록 되어 있다. 선은 주님에 의해 설비되나, 악은 그분에 의해 예견되는데, 선과 악이 마음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 밖에 없으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 밖에 없다.

접리





22

주님

(The Lord)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보존자이시다. 또한 그분이 천국의 하나님이시고 지상의 하나님이시다.

인간과 더불어 천국 생명의 구성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이다. 이 생명을 인간은 주님으로부터 끌어낸다. 그리고 이 생명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인간으로부터서 끌어 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 1의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태어난 이들은 주님, 그리고 그분의 신성과 인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그 이유가 모든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이를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

가진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사람에게 거한다." (요한 3:36) 다시, "이것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인즉, 아들을 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들어올릴 것이다." (요한 6:40)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하셨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더라도 살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 11:25,26)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주님과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과 결합될 수 없고, 고로 그들은 천국에서 천사들이 거주하는 어떤 장소도 할당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과 결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과 결합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독생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요한 1:18) 다시, "너희는 어느 때이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분의 모양을 본적도 없다." (요한 5:37) 다시, "아들, 그리고 아들이 그분을 계시할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알 사람은 없다." (마태 11:27) 그리고 다시, "나는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다. 나를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 (요한14:6) 누구도 주님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하느님에게 결합되어질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그 두 분은 하나이기 때문에서이다. 그분이 이렇게 가르치신다. “만일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너는 내 아버지 역시 알았을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고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요한14:7-11) 그리고 다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믿을 것이다.” (요한 10:30,38)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에, 그리고 주님은 믿어져야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바, 명백한 것은 주님이 하느님이시다는 것이다. 주님이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말씀 역시 이렇게 가르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말씀은 하느님과 더불어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은 말씀이셨다.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말씀 없이 만들어진 것은 어떤 것도 있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이 육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거주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것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요한1:1,3,14) 그리고 이사야서에서(9:6), “우리에게 어린 아이가 태어나,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통치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느님, 영웅, 영원의 아버지, 평화의

주님

왕자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고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7:14, 마태1:23) 그리고 예레미야에서(23:5,6, 33:15,16), “보라, 때가 이르면, 나는 다윗으로부터 의로운 가지를 들어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한 왕이 통치하고 번창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이름인즉 그들은 그분을 여호와 우리의 정의라 부를 것이다.”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사람, 천국으로부터의 빛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신성을 본다. 그러나 천국의 빛으로부터가 아닌 이들은 주님 안에서 인성 밖에 더 이상의 것은 보지 못한다. 어쨌든 신성과 인간은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있는 바, 그 둘은 하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를 가르치신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요한17:10)

교회에 알려져 있는 바, 주님은 아버지 여호와로부터 임신 되셨다는 것, 고로 임신으로부터서도 그분은 하느님이셨다는 것, 또한 그분은 몸 전체와 더불어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 그 이유는 그분은 무덤에서 그분 뒤에 남긴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 이 주제에서 역시 그분은 후에 제자들에게 확증하시어 말하시기를, “보라, 내 손과 발을, 이것은 나 자신이다. 나를 만져라 그리고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주님

보는 바 같이 나는 가지고 있다.”(누가24:39); 그리고 비록 그분이 살과 뼈에 관한 점에서 사람이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닫힌 문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명백히 하신 후에 그분은 눈에 보일 수 없게 되셨다. (요한 20:19,26, 누가 24:31) 이런 경우의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두 다르다. 그 이유가 그분은 그분의 몸에 관하여가 아닌 영에 관하여서는 단독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영 같이 있지 않았다고 말하심에서 주님은 자신은 또 다른 사람 같이 있지 않았다고 말하셨다. 이로부터 주님 안에 있는 인간 역시 신성임이 분명하다.

모든 사람은 인간 아버지로부터 혼(soul)이라 불리는 것, 즉 그의 생명의 실재를 가진다. 이 실체로부터 몸이라 불리는 것, 즉 생명의 실체가 있다. 그러므로 몸은 혼의 인형(effigy, 초상)이다. 혼은 이 인형을 통하여 저 좋을대로 자신의 생명을 활동하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는 부모를 닮아 태어나지고, 가족들은 서로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몸의 어떤 종류, 즉 주님이 가지셨던 인간은 어떤 종류이었느냐가 드러난다. 즉 그것은 그분의 생명의 실재(esse)인 신성 자체와 같았다는 것, 또는 아버지로부터의 혼 같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말하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요한 14:9)

주님

주님의 신성과 인간이 한 분 인물(one Person)이라는 것은 기독교계에 두루 받아들인 신조와 일치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 “비록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인간일지라도, 그분은 아직 둘이 아닌 한분 그리스도이다; 인물의 통일성을 수단으로 전부가 하나이다. 몸과 혼이 한 사람이듯, 그렇게 하느님과 인간은 한 분 그리스도이다.” 이 말들은 아타나시안(Athanasian) 신조로부터 취해진 것이다.

신위(Deity)에 관련하여 세 인물들이라는 생각을 견지하는 이들은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는 생각을 지닐 수 없다. 입술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라고 말한다 해도 여전히 그들은 셋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신위에 관련해 한 분 인물 안에 세 가지 신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한 분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고, 역시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고 생각한다.

한 분 인물 안에 셋에 관한 생각은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서, 그리고 성령은 그분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생각할 때 윤곽이 잡힌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주님 안에 있다; 즉, 아버지라 불리는 신성 자체, 아들이라 불리는 신성한 인간, 그리고 성령이라 불리는 신성한 진행(Proceeding)이다.

신성 전체가 주님 안에 있기에 그분에게 천국들 안에서와 땅 위에서 모든 권능이 속해 있다. 이를 그분께서 이렇게

주님

선포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다.” (요한 3:25) 다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육을 제압하는 힘을 주셨다.” (요한17:2)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전달되었다.” 다시, “모든 권능이 천국과 땅에서 나에게 주어졌다.” (마태 28:18) 이 권능은 신성이다.

주님의 인간(성)을 또 다른 사람의 것과 비슷하게 만드는 이들은 참 신성으로부터 그분에 관한 개념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모든 이의 몸이 그의 혼의 인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몸 전체를 가지고 있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의 얼굴이 태양 같이 빛난 그분의 변모하심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셨는가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 주님께서 그분에 대한 신앙에 관해 말하신 것들, 아버지와 하나된 주님의 존재에 관하여도, 그분의 신성화 하심에 관하여도, 그리고 천국과 땅의 모든 권능에 관해서도, 즉 이런 것들이 신성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간성에 관해 말해진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님이 그분의 인간성에서 조차 편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마태 28:20) 그럼에도 성찬에서 그분이 편재하신다는 믿음은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편재함(omnipresence)은 신성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이라 불리는 신성이 주님의 인간성으로부터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성령은

주님

그분의 신성화된 인간성(His Glorified Human)으로부터 진행된다.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해졌기 때문이다. “성령은 아직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예수는 아직 신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 7:39)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서 멀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을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만연되어 있었던 지옥들의 세력들을 복종하게 하심으로, 동시에 그분의 인간성을 신성화 하심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것을 작업하셨다. 이렇게 하셨기에 그분은 지옥을 영원한 복종 아래 묶어 둘 수 있으셨다. 지옥을 복종하게 함, 동시에 그분의 인간성을 신성화하심은 그분이 어머니로부터 가졌던 인간성 안으로 침입한 시험들을 극복해가심을 통하여 결과되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수난은 마지막 시험이었고 (마무리 짓는) 완전한 승리였다.

주님이 지옥들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그분 자신이 가르치셨다. 십자가의 수난이 가까워졌을 때 그분은 말하셨다, “지금 은 이 세상의 심판이다. 지금 세상의 제1인자가 내던져질 것이다.” (요한 12:31) 다시, “힘내어라,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 (요한16:33)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에돔으로부터 오는 이가 누구냐? 아주 큰 그분의 힘 안에서 여행하신다. 구원하

주님

는 힘이다. 나 자신의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이렇게 그분은 그들의 구세주가 되셨다.” (63장, 59:16-21) 주님이 그분의 인간성을 신성화 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은 마지막 시험이었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 이를 통하여 그분은 신성화를 이루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요한 복음(13:31,32)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르치신다.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께서 말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은 신성화된다. 그리고 하느님은 자신 안에서 그분을 신성화 하실 것이다. 그리고 곧 그분을 신성화 하실 것이다.” 다시, “아버지,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신성화하시고, 아마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신성화 할런지 모릅니다.” (요한 17:1,5) 그런 다음 다시, “지금 내 혼이 괴로워하고 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 그런다음 천국으로부터의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나는 둘 다를 영광되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영광되게 할 것이다.” (요한 12:27,28) 다시 누가복음(24:26)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어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은 주님의 수난에 관해 말해졌다. 영광되게 함은 신성으로 만듦을 뜻한다. 이로부터 나타나는 바, 주님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를 수단으로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구원은 있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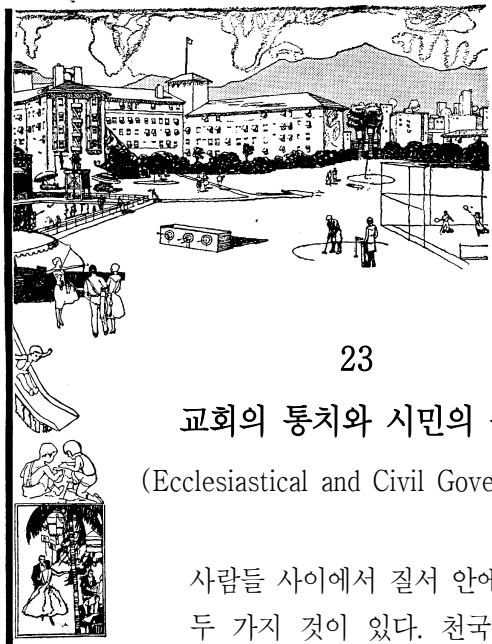
주님

이해되는 것은, 주님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인간성을 충분히 영광되게 하셨을 때, 그분은 어머니로부터 입었던 인간성을 벗으셨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의 인간성을 입으셨다, 이것이 신성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다.

교회에서 첫째이자 맨 먼저인 것은 한 분 하느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지식과 인정함을 떠나서는 결합도 없다. 주님을 인정함 없이 있는 교회의 경우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주재한다.” (요한 3:36)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 “너희는 내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다.” (요한8:24)

주님 안에 삼위(trinity)가 있다는 것, 즉 신성 자체, 신성한 인간, 진행되는 신성이 있다는 것은 천국으로부터 있는 신비이다.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 안에 있을 이들을 위하여 계시되었다.



23

교회의 통치와 시민의 통치

(Ecclesiastical and Civil Government)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 안에 있어야 하는
두 가지 것이 있다. 천국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이다. 천국에 속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은 시민에 속한 것이다.

질서가 유지되려면, 권위를 지닌 인물이 있어, 질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것들, 질서에 반대될 경우 초래되는 것들을
주지시키고, 질서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보상을, 질서에
거스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형벌을 가해야 유지 존속된다.
이것이 실시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지 모른다. 그 이유가
유전성에 의해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 타인의 좋은 것을

교회의 통치와 시민의 통치

갈취해 내 것 삼고 싶은 욕망은 모든 이에게 대체로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 거기로부터 적개심, 시기, 미워함, 복수, 사기, 잔인함, 이 외 수많은 악들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법에 의해 제한된 상태에 놓이고, 각기 자기들의 사랑에 걸맞는 보상을 수단으로, 즉 선한 자에게는 영예와 이득을 보장하고, 악한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방식 속에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을 자초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권위가 부여된 인물은 인간 집단을 질서 안에서 보존하는데 필요하게 된다. 이 인물은 법률에 노련해야 하고, 슬기 있으며 특히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최상일지 모른다. 질서는 권위가 부여된 이들 사이에도 물론 있어야 한다. 이들이 좋아해서 이든 무지함으로해서 이든 질서에 거스르는 악들을 허용하지 않도록, 그럼으로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힘이 필수일 것이다. 이는 공직 지위가 더 높거나 더 낮거나 하는 계열을 수단으로 종속 관계에서 관리 감독됨으로 보호될 수도 있다.

천국에 속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 조직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를 갖도록 얹혀진 사람들을 성직자라 부른다. 그들의 직능은 성직이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 즉 시민들 사이에 얹혀져 권위가 부여된 사람들은 행정 장관, 그리고 그들의 최고직은 왕이라 부른다.

교회의 통치와 시민의 통치

성직자의 경우, 그들은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한 그 길로 인도해가야 한다. 그들은 말씀으로부터 자기들의 교회의 교리에 의거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교리에 따라 살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진리들을 가르치고, 진리들을 통하여 생활의 선으로, 고로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성직자는 양떼의 선한 목자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하나 생활의 선으로 인도하지 않는 성직자라면, 그는 나쁜 목자이다.

성직자는 인간의 혼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공언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인간의 내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능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이 권능은 주님 만에 속하기 때문이다.

위엄과 영예는 그들이 집행하는 거룩한 사항들 때문에 성직자들에게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슬기 있는 성직자는 거룩한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인 바 주님께 영예를 돌린다. 한편 슬기롭지 못한 이들은 영예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때로는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갈취하기도 한다. 자기들이 집행하는 거룩한 것 때문에 자신에게 영예가 있다고 주장하는 성직자는 그들이 돌보아야 할 혼들의 구원보다는 영예나 이득을 더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영예를 자신들이 아닌 주님에게

교회의 통치와 시민의 통치

돌리는 이들은 영예나 이득에 앞서 혼들의 구원을 돌보고 있다. 어떤 직능으로부터의 영예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집행하는 공직의 위엄에 따라 사람에게 붙어져 있을 뿐이다. 고로 접합된 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역시 공직과 더불어 분리되어진다.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있는 영예는 지혜의 영예,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부터의 영예이다.

성직자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고 진리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생활의 선으로 인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누구도 강요하려 들어서는 안된다. 사람은 자기가 진리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심정에 담아놓은 것에 거슬러 믿도록 강요될 수 없다. 성직자와 다르게 믿는 사람, 그런데 어떤 혼란함도 만들지 않는 사람은 평화로이 놓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혼란함들을 만드는 사람은 그 혼란에서 그가 분리되게 해주어야 할지 모른다. 그 이유는 이것 역시 성직 신분이 감당해야 하는 질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직자는 신성한 법과 예배에 속하는 것들을 집행하는데 권위가 부여된 사람들이다. 이에 비해 왕이나 행정관들은 시민적 법들과 재판에 속하는 것들을 집행하는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왕 한사람이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없는 바, 왕 아래 권위를

교회의 통치와 시민의 통치

이양받은 사람들이 서열별로 내려가며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왕으로서도 실시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업무를 왕 대신 처리한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집합해 왕정의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왕 자신은 권위 측면에서 최고이다.

진짜 왕정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어있을 뿐이다. 왕권이 자신 고유에 속한 것이라고 믿는 왕, 그리고 자기 직권의 위엄이 자기 고유의 것에 속한다고 착각하는 행정관은 슬기롭지 못하다.

왕정은 공정의 원리로부터 왕국의 법들에 따라 집행함에, 그리고 이 법들에 의거 재판함에 있다. 법을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왕은 슬기롭다. 그러나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법이 자신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왕은 법 안에 왕정을 둔다. 그리고 법들이 그 자신마저 통치한다. 그 이유가 그는 법이 정의를 뜻하고 모든 정의는 신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간주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왕정을 놓고 있다. 그는 자신이 법이라고 믿거나 정의인 법이 자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착각하고 있다. 신성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할 그가 오히려 신성인 것 마저 자신에게로 가로챈다

정의인 법은 슬기롭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입법자에 의해 왕국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왕과 신하 모두 그

교회의 통치와 시민의 통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제정된 법에 따라 사는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본을 보이는 바 진실로 왕이다.

자기에게 절대적 권력이 있다고 믿는 왕, 그리고 그의 신하는 자기의 노예나 다름 없는 바 그들의 소유물이나 삶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있다고 상상하는 왕은 만일 그가 이런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는 왕이 아닌 폭군이다.

순종은 왕국의 법들에 따라 왕에게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시민은 순종 때문에 말에 의해서 이든 행위에 의해서 이든 결단코 상처받아져서는 안된다. 그 이유가 이것 위에 공공의 안전이 의존되기 때문이다.



